

공감

2022.02.28-03.06

643 호

gonggam.korea.kr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 베이징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BEIJING 2022



감동은 계속된다

재택치료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일반관리군



COVID-19 자가진단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강관리

-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치료 안내

- ✓ **치료가 필요하다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습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다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① 응급상황 관련 증상

- | | |
|----------------------|-----------------------------|
|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상처는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든다



● 김은경 출판 기획 에디터 겸 작가

12년 차 에디터.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를 썼다.
2022년에는 '성장'과 '실행'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볼 예정이다.

나는 프리랜서 에디터이자 기획자이며 글 쓰기를 가르치는 강사다. 그리고 몇 년 전 한 가지 직업이 추가됐으니 바로 요가 강사다.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 수련을 좀 하고 싶어서 명상을 배우러 요가원을 찾았는데 눈떠보니 지도자 자격증이 내 손에 들어와 있었다. 포털 검색창에 동네 이름과 '요가원'을 적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 지금 요가 수업을 정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만 가끔 가르치는 정도인데 수련을 하다가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2년 전, 지도자 자격시험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수련을 꾸준히 해온 터라 각 동작을 제법 멋지게 해낼 수 있었는데 욕심을 내다가 등을 크게 다쳤다. 등에는 팔다리로 향하는 모든 신경이 모여 있었고 그 탓에 등은 물론 팔다리, 눈꺼풀까지 전기충격을 받는 듯 찌릿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팠다. 마치 어떻게 앉고 누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고 했고 어느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지인에게 물어 물어 용하다는 물리치료를 찾아갔을 때는 등도 등이지만 내 체형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내 몸을 살피며 더 나이 먹어서도 견고 싶으면 젊었을 때 최대한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그날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내내 울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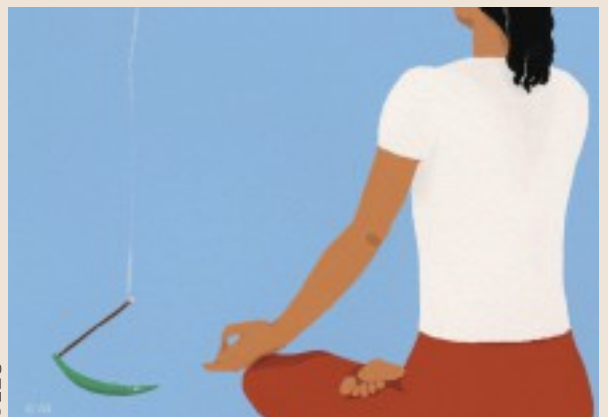
한 느낌이었다.

어느 곳의 진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요가도 잘하고 잘 걷고 있다. 피곤하면 허리가 몹시 아프고 격한 동작은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지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멋진 요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2019년, 미국의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타임>지에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유방 절제술을 받았던 이야기를 실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위해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었었는데 그중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내 몸의 상처를 어떻게 느끼냐고 묻는다. 상처는 우리가 무엇을 극복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든다.”

나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자세를 알려 줄 수는 없지만 상체를 숙이거나 젖힐 때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 허리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어떤 동작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대체할 동작을 안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요가를 배운 목적이 마음 수련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다. 만약 내가 진짜 요가 강사가 되려 한다면 상처 덕에 나의 역할은 명확해진다. 무리하지 않는 동작을 하면서 마음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요가 강사. 누군가는 과거의 나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서 요가를 찾을 테니까.

저 문장을 다시 보니 당시 요가원 선생님들과 동기들이 내게 해준 말이 떠오른다. 아파본 선생님만이 아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아픈 순간에야 비로소 겸손함을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상처는 우리가 무엇을 극복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적어도 이 상처는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다.◎



윤금민
© 2022





‘세계 습지의 날’을 아시나요?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은 이란 람사르에서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람사르 조약을 기념하고 습지를 보존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현재 17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순천만습지 등 24개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 순천만 낙조

|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국민공감채

2022. 02.28-03.06

643호

김은경의 전략 수정

- 01 상처는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든다

공감 포토

- 02 '세계 습지의 날'을 아시나요?

국정종합

- 06 농·산·어촌 교통약자 격리자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정상외교

- 08 5년간 정상외교 141회...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높여"



56

힘내라 대한민국

- 24 추경 16.9조원... 소상공인 300만원·특고 등에 100만원씩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28 생산공정 스마트화로 지역 살리고 환경 지키고

특별기획_ 맛있는 정책이야기 ①

- 30 치매국가책임제 설계자는 누구인가?

내 삶을 빛내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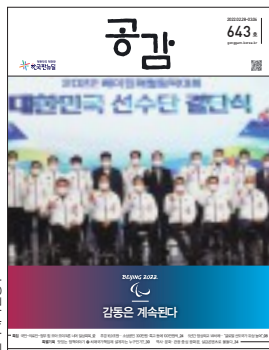
- 34 역사·문화·관광 중심 광화문, 실감콘텐츠로 물들다

청년이 미래다

- 38 MZ세대가 이끄는 메타버스 '청년이 바꿨지'
40 주머니 든든 사회 첫 발 내딛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해볼까?

대한민국 혁신 국민이 누린다 ①

- 42 검찰 사칭하고 금전 요구 받으셨나요?
핀센터 010-3570-8242로 연락하세요!



표지 이야기

감동은 계속된다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3월 4~13일)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뒤를 이어 감동의 스포츠 무대를 연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파라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총 6개 종목에서 50여 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이 경쟁한다. 우리나라는 6개 종목 모두에 선수·시각·뇌병변·절단 및 기타 장애인 선수 32명, 임원 50명 등 82명을 내보내 동메달 2개를 목표로 열전을 펼친다.

특 집 오미크론 너머 일상회복

- 14 / 풍토병처럼 관리 초입 단계... 안정화면 일상회복 추진
- 16 / 비대면 진료 어디에서 받았나요?
“동네 병원서 상담·처방 받았죠”
- 20 / 감염병 전담 적십자병원의 분투

홍화정 만화_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㉞

- 44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내 삶을 바꾸는 정책

- 46 “일등 아님 인권율” 체육계 큰걸음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 50 투혼이 불뿔는다

연재_독자가 추천하는 어른 그림책 ㉠ 거짓말

- 55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연재_안방에서 즐기는 세계의 뮤지엄 ㉡

내셔널 갤러리

- 56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려야 한다... 대영제국의 자부심

연재_한국의 맛 ㉢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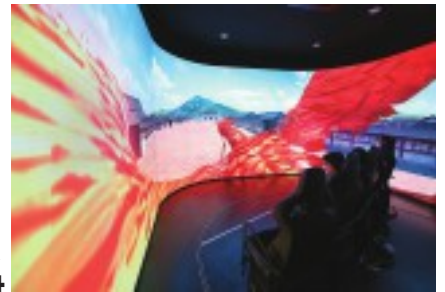
- 60 승패를 떠난 화합의 한마당

연재_한국의 맛 ㉣ 김치

- 62 ‘살아서 맛나라라’ 공작은 김치야 반갑다

- 64 참여공감

34



62



발행일 2022. 02.2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황희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농·산·어촌 교통약자 격리자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환자나 밀접접촉자로 격리 중인 유권자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15일 격리·환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고 환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2월 23일까지 발송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돼 있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수량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했다.

또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각장애선거

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만 4000여 곳에 첩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4880여 곳에 첩부됐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대선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조계완 기자

1

쉽게 설명한 3.9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3.9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

■ 투표일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 사전투표기간(먼저 투표하는 날)은 3월 4일(금)~ 3월 5일(토)입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갖고 가야합니다.

3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여러번 찍으면 안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됩니다.

4

투표소에서 조심해야 할 것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 한겨레 2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화하고 있다. | 청와대

5년간 정상외교 141회…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높여”

정상외교 추진 성과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5년 동안 모두 141차례의 정상외교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56개국을 방문했고 56개국에서 방한한 총리급 이상 외빈을 만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열린 29차례 화상 정상회담·회의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였다. 외교부는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 위한 당당한 협력외교

문재인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개 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목표에 대해 남북미 정장간 합의를 도출했다. 미 행정부가 교체된 뒤에도 북한과 조속

한 대화 재개를 위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공고화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비롯, 다양한 양자·다자회의 결과 문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반영했다.

미국과는 정상회담 10차례, 정상 통화 26차례 등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포괄·호혜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견인 ▲아세안·중미 등 양국간 지역 협력 외연 확대 ▲기후변화·공급망·코로나19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서 공조를 강화했다.

중국과는 소통 강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했다. 2017년 12월 중국 방문 때 양국 정상 차원의 교류·협력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경제·보건·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을 통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했다. 5년 동안 정상회담 6차례, 정상 통화 6차례, 문 대통령-리커창 총리회담이 4차례 있었다.

일본과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도모했다. 대화를 통해 과거사 현안 해결 노력을



3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12일 영국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지속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 분야 협력을 추진했다. 5년 동안 정상회담 및 환담 7차례, 정상 통화가 14차례 있었다.

러시아와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변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신북방정책과 '9개 다리 협력'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조응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 5년 동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포함해 정상회담 6차례, 정상 통화가 4차례 있었다.

외교 지평 확대와 국제 현안 기여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6차례 13개 국 순방 ▲5개 국 정상 방한 ▲화상 회의·회담 29차례 참여 ▲정상 통화 70차례 등 활발한 대면·비대면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았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5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협의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19 의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비선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백신협력과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적극적 백신 외교를 통해 국민안전과 글로벌 보건상황을 개선하고 양자·다자 보건협력 및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해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를 주도했다.

인프라·방산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외교적 지원이 결합돼 대규모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꼽힌다. 이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관련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유럽의 전진기지인 폴란드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6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환영식에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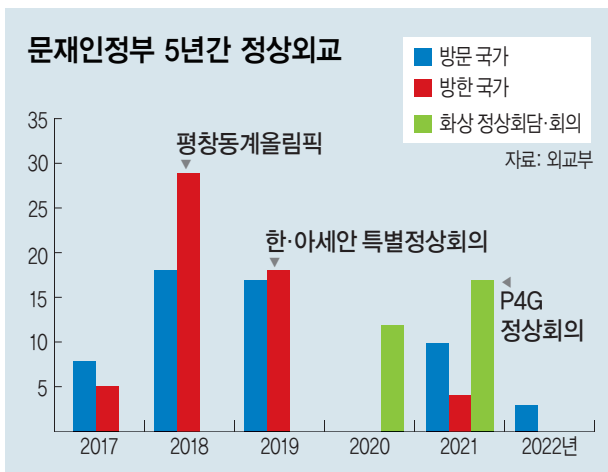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20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351억 달러로 최근 5년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은 306억 달러로 2년 연속 수주 목표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을 통해 방산수출액이 2016년 25억 6000만 달러에서 2021년 72억 5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첫번째 방문을 계기

로 2022년 1월 UAE 두번째 방문에서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당시 계약액인 35억 달러는 단일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2021년 12월 호주와 2022년 1월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해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2021년 5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으며 2021년 12월 호주 방문을 계기로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 역시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글로벌 현안 대응 국제협력 주도

외교부는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주도한 것 역시 정상외교의 성과로 소개했다.

2021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같은 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 후속조치를 추



7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8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22년 1월 20일 이집트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방국과 보건·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도 주도했다. 2021년 9월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 2021년과 2022년 각 1억 달러씩 공여하는 등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기여를 확대해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우주·6G(6세대)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실질협력을 추진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했다. 2022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궤도선과 2023, 2024년 발사 예정인 미국 달착륙선 개발을 서로 협력하고 있다. 또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21년 6월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여러 성과·방향 다음 정부에 인계”

문재인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기여 확대 ▲세계 속

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성과를 이뤄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다음해인 2010년 1조 3000억 원이었던 ODA 예산은 2017년 2조 6000억 원, 2020년 3조 4000억 원, 2021년 3조 7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8년 3월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교육부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승격됐고 베트남 대학입학시험 과목으로 채택됐다. 2017년 134명이었던 아세안 장학생을 2022년까지 두 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2020년(432명) 조기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강대국 간 갈등이 커지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공급망·코로나19·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외교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방산 수출과 관련해 “고도의 신뢰가 축적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정상외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외교의 성과와 방향이 다음 정부에 잘 인계돼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원낙연 기자

겨울의 끝,
봄의 시작



겨울은
결국,

2월, 봄의 문턱에

국민-의료진-정부 힘 모아 오미크론 너머 일상회복



은 길었지만 봄은 옵니다

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국민, 의료진, 방역당국의 분투 속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대규모 유행에 직면하게 됐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에 견줘 치명률은 4분의 1 정도로 낮지만 전파력이 두 배 이상 높아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체계도 오미크론 맞춤형으로 개편됐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모든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당국 관리 아래 진단, 역학조사, 격리, 치료 과정이 진행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 아래서는 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에 방역당국의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점이다. 그리고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증이나 무증상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주로 동네 병·의원

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맞춤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지 않은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되고 동거 가족 중 접촉완료자의 경우 격리되지만 의약품이나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예전처럼 격리 과정에서 자가격리앱 등으로 동선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본 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가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 역량의 우수성이 심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동안 여러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 의료진, 방역당국이 다시 힘을 모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동네 병·원에서 경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체계가 갖춰지고 상급 병원의 위중·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역량도 확보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풍토병처럼 관리 초입 단계 안정화면 일상회복 추진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신규 환자가 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역대 처음 15만 명을 넘어섰지만 위중·중증 지표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외래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참고



임신부

- 진료받던 산부인과 전화 상담·처방, 대면 필요시 외래진료센터 이용
- 조산이 우려되거나, 분만이 가까워지면 코로나19 환자용 분만 병상(82곳) 이용



소아

-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또는 소아 전용 재택치료관리 상담센터 이용
- 대면진료 필요시 외래진료센터 이용

대면진료 필요한 사고, 질병(코로나19 외)

- 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처치·수술·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가능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이를 위한 희생은 점점 더 커진다”며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최종적으로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가 확정된 6만 72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38%, 0.18%로 델타(중증화율 1.4%, 치명률 0.7%)의 4분의 1 수준이다.

“안정적 관리 판단 서면 방역정책 큰 틀 개편”

방역당국은 확산 억제에서 관리로 전환된 방역체계가 오미크론과 공존하기 위한 체계로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환자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체계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 시점에 대해 손 반장은 “향후 유행의 이 상황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



격리해제 전 동거 가족 감염해도 격리 연장 없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가 급증하면서 가정 내 연쇄 감염도 늘고 있다. 최초 확진자는 7일이 지나 격리 해제됐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 줄줄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연쇄 감염 관련 궁금증 등을 알아본다.

-가족의 연쇄 감염으로 불안한데 출근해도 괜찮나?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감염력 자체가 거의 소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악화됐 때에는 방역당국의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격리나 수동감시 해제 뒤 3일간은 마스크를 늘 착용하고 사적모임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단 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이 수동감시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집단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 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격리 해제 전 동거가족이 추가 진단됐다. 격리기간이 연장되나?

=2월 9일부터 환자 및 접촉자의 격리 지침이 변경돼 동거인 격리가 간소화됐다. 이전엔 함께 격리 중이던 동거인이 추가 진단 판정을 받으면 격리기간이 함께 늘어났지만 지침 변경에 따라 추가 환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추가 환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은 최초 환자와 함께 격리 해제된다. 가족의 추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동거 가족 진단, PCR 검사 자주 받아야 할까?

=환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라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동감시 해제 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라면 최초 환자의 해제일에 동거인도 수동감시가 해제된다. 양성이 나온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추가 격리된다. 동거인은 매일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 간 연쇄 감염을 막으려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불가피하게 환자를 마주쳐야 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하루 최소 3회, 10분 이상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을 소독하는 등 위생 지침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가족 내 화장실 따로 쓰기, 침구·수건 따로 쓰기 등이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지 여부와 그때의 위중·중증·사망자들의 추이,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3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췄다. 위중·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아직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위중·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의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감염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격리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을 쫓아갈 수 없다.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서 위중·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세심한 안내·상담·치료가 관건인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인력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 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계환 기자

비대면 진료 어디에서 받았나요? “동네 병원서 상담·처방 받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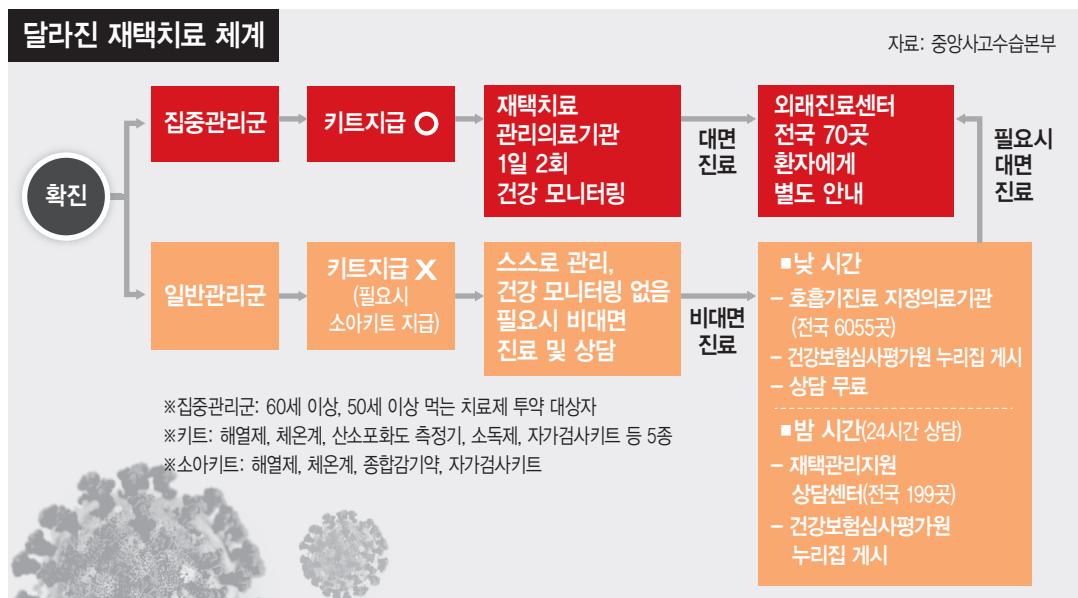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동네 병·의원 치료기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환자 수가 증가하자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들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무증상이나 경증인 일반관리군 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약 약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통해 재택치료 일반환자군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환자와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서 전화 상담 후 처방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한민정(43) 씨는 2월 10일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 유치원에 다니는 7세 딸아이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 다행히 남편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가족 모두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한 씨는 보건소로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이기 때문에 7일간 격리 이후 별도 통보나 검사 없이 자동 격리해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 건강 모니터링과 재택치료키트를 받지 못하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필요시 상담센터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서울 서남병원 24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 서남병원

진단 첫날 가벼운 몸살 기운만 있었던 한 씨는 이튿날부터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이 따끔거리며 아팠고 콧물과 기침까지 나면서 많이 힘들었다. 열이 많이 오른 7세 딸아이는 미리 사놓은 종합감기약과 해열제 등으로 치료했지만 어른용 비상약은 구비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재택치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검색해보니 한 씨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집 근처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과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 씨는 “아이와 자주 다니던 동네 호흡기내과에서 재택치료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무척 반가웠다”며 “평소에 다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인후통과 콧물, 기침 등 증상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줘 안정이 됐다. 또한 아이가 열이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상담을 하니 안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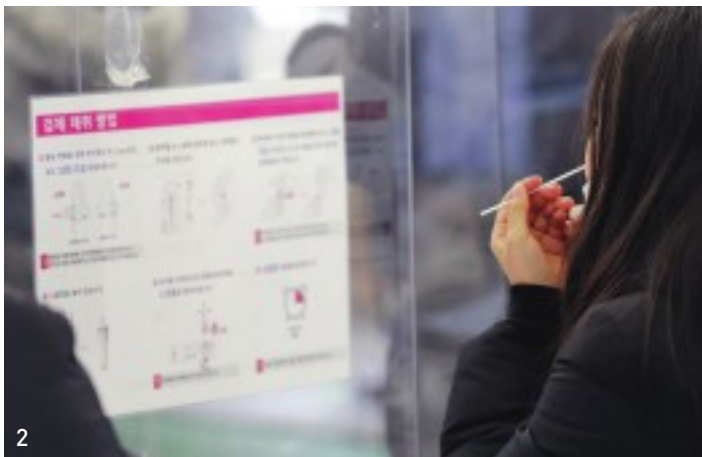
이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판정이 나온 남편이 약국에 가서 받았다”며 “외부에 나가지 못해도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약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첫 비대면 원격 진료 만족스러워요”

서울 도봉구에서 자영업업을 하고 있는 김성진(38) 씨 역시 2월 20일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후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격리는 해당되지 않았다. 김 씨는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3차까지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와서 당황했다. 감염 경로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치료와 생활 등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열과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집에 있는

“평소에 다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인후통과 콧물, 기침 등 증상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줘 안정이 됐다. 또한 아이가 열이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상담을 하니 안심이 됐다.”



1 2월 9일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중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2 2월 9일 서울 코로나19 송파구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 한겨레

종합감기약을 먹었더니 약간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 하지만 격리 7일 동안 복용할 약이 없었기에 추가로 약을 처방받아야 했다. 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즉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집 근처의 병원을 알아봤다.

김 씨는 “앱을 통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진료를 신청했더니 30분 뒤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의사가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며 상담해주 감사했다”며 “처방받은 약은 택배나 퀵서비스 중에 선택이 가능해 택배를 신청했고 다음 날 처방약이 배송됐다.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무척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역시 고생이 많지만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재택치료자에게
더 빨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주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2월 21일 기준 시·군·구 및 시·도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99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의료상담센터 서남병원(www.snamhospital.com)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며 전화 상담과 처방 등의 진료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남병원 전화상담 센터에는 총 12대의 전화가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정영 서남병원 외래간호팀장은 “재택치료 환자의 전화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400~500건 정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전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처음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위해 배치된 인원이 의사 3명과 간호사 12명이었으나 전화 상담이 많아 인원을 늘리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24시간 운영

특히 서남병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과 새벽 상담이 많다. 이에 병원 측은 모든 전화가 통화 중일 경우 환자가 남겨놓은 번호로 의료진이 다시 전화를 하는 ‘콜백(call back)’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들의 불편을

재택치료 병·의원 일평균 18.4%씩 ↑ 인터넷에서 직접 참여 신청할 수 있게 개편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이나 처방을 해주는 동네 병·의원이 일주일 사이 4199곳 늘어 6055곳이 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월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로 상담·처방이 가능한 거주지 주변의 동네 병·의원이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2월 10일부터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을 위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은 2월 10일 1856곳에서 2월 18일 기준 6055곳으로 일 평균 약 18.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전화 상담 참여 병·의원은 경기 1737곳, 서울 1541곳, 경남 330곳, 대구 317곳, 인천 299곳, 경북 276곳, 전남 253곳, 부산 214곳, 충남 206곳, 충북 202곳, 전북 188곳, 강원 155곳, 대전 114곳, 광주 107곳, 제주 64곳, 세종 32곳, 울산

20곳 등이다.

복지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이 쉽도록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수기로 접수했으나 2월 21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팝업창을 통해 참여 병·의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김승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및 게시는 국민 안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소화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화 상담을 하는 간호사는 환자와 1차 상담을 하면서 환자의 증상과 상태 등을 물어보고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의사에게 연결한다”며 “의사는 환자와 다시 면담하게 상담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외래진료과로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화 상담 내용은 의료적인 질문 외에 행정적인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관리군 환자가 알아야 할 재택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 집에 해열제조차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해열제 등을 미리 구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환자들이 코로나19 증상 외에 속쓰림, 피부발진 등 일반 증상을 문의하기도 하고 격리 해제 기간,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등을 궁금해하세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를 돕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모든 문의에 성심껏 답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의료진은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역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지만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재택치료자에게 더 빨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주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주 기자



감염병 전담 적십자병원의 분투

1 서울적십자병원 8층 '간호 스테이션'에서 최영애 수간호사(오른쪽부터)와 송시정·이선미 간호사가 음압병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2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은 2020년 4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코로나 시대 공공병원 가치 재조명

2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이라기엔 일반 환자만 눈에 띄었다. 이주형 서울적십자병원 대외협력팀장은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환자와 접촉할 수 없게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서로 마주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본관 정문에 서지 않고 건물 뒤로 향했다. 본관 뒤에 새롭게 설치된 격리 통로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는 의

3 서울적십자병원 의료진이 구급차에서 내린 코로나19 환자를 격리 통로로 안내하고 있다.
4 서울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이 드나드는 후문과 엘리베이터 주변을 조립식 패널과 비닐 등으로 막아 일반 환자의 동선과 분리했다.



료진의 안내를 받아 격리 통로로 들어갔다.

이주형 팀장의 안내를 받아 본관으로 들어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이 드나드는 격리 통로와 엘리베이터 쪽을 확인하니 조립식 패널과 비닐 등으로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다. 이 팀장은 “현재 6~8층 3개 층을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증 환자만 입원해 있다”고 했다.

전화·CCTV로 경증 환자 대면 최소화

8층에 도착하자 음압병실 앞 ‘간호 스테이션(업무공간)’에서 간호사들이 두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영에 수간호사는 “중증도 환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24시간 교대로 병실에 상주하지만 경증 환자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간호한다”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으로 병실을 관찰하면서 환자와 전화로 소통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방호복을 입고 음압병실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원래 병실에는 CCTV가 없지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음압병실에는 CCTV를 설치했다.

김지은 간호사가 D레벨 방호복을 입기 시작했다. 이날 새로 입원한 환자가 평소 기저질환 때문에 복용하던 당뇨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D레벨 방호복은 착용 단계가 복잡해 입는데 거의 10분이 걸렸다. 방호복을 입은 김 간호사는 음압병실에 들어가 환자가 가져온 약을 가지고 음압병실 유리문 앞으로 나왔다. 스테이션에 있던 송시정 간호사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김 간호사가 내미는 약의 사진을 찍었다. 코로나19 환자가 갖고 있던 약은 음압병실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사진을 찍어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으로 병실을 관찰하면서 환자와 전화로 소통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방호복을 입고 음압병실로 들어간다.”

서울 적십자 병원은 2020년 4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한 이선미 간호사는 최근 환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고 힘들어했다. “왜 다인실이나? 1인실이나 2인실을 달라”, “병원에서 주는 도시락 반찬이 맛이 없다”는 항의는 기본이고 영양제주사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보다 전화 통화에서 환자들이 심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병실에 들어가는데 방호복을 입으려면 아무리 숙달돼도 10분은 걸려요. ‘당장 들어오라 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막말하고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약이나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화내는 환자도 있어요. 감정노동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형 팀장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환자들이 ‘죽는 게 아닌가’ 긴장하고 의료진에 고마워하는 편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일상화되다 보니 코로나19 환자들도 그냥 보통 환자처럼 의료진을 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택배 전달까지 업무 가중

최근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은 택배다. 음압병실에 택배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만 가능하다. 환자들이 택배 중에서도 새벽 배송을 많이 시켜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만 배송받는 것으로 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저희가 의료진인지 택배 배송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환자들이 택배를 많이 시켜요. 택배가 오면 내용물을 확인해 병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은 빼고 넣어야 하는데 자기 물건 안 넣어줬다고 신고하겠다는 환자도 있어요.”

2021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전형석 수련의는 “최선의 진단을 위해 흉부 사진을 찍든 혈액검사를 하든 가용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불안한 환자들이 우리가 마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 서운할 때가 있다”며 “의료진이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환자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2년 동안 의료진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환자가 폭증하던 2021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이었다. 수도권 3차 병원의 중증 병상이 다 차면서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가 한 단계 높은 3차 병원으로 옮겨갈 수 없었다.

수련의는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3차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데 받아줄 병상이 없어 우리 병원에서 3~4주씩 대기하며 힘겹게 버티다 돌아가신 환자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35년 동안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한 최영애 수간호사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사회취약계층이 우리 병원을 많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지금도 적십자정신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적십자병원 의료진은 중증 환자 병상에 방호복을 입고 3~4시간마다 교대하며 상주했다. 최영애 수간호사는 “그때 의료인력을 지원받았지만 대부분 숙달되지 않은 인력이었고 중환자는 많아지고 사망 환자도 나오



5 김지은 간호사가 음압 병실에 들어가기 위해 D레벨 방호복을 입고 있다. 6 서울적십자병원 8층 음압 병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송시정 간호사(오른쪽)가 김지은 간호사가 내미는 약을 사진 찍고 있다.

면서 다들 정말 ‘번아웃(탈진)됐다’고 털어놓았다.

“29세 환자가 위독해 인공호흡 직전까지 갔는데 3차 병원으로 보낸 뒤에도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괜 찮더라고요. 또 4시간 가까이 인공호흡을 했던 환자도 걱정돼 알아보니 무사히 퇴원했대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보람을 느끼죠.”

이선미 간호사는 퇴원한 환자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을 때 기운이 난다고 했다.

“한 달가량 입원하며 호흡기까지 달고 있다 퇴원한 환자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한라봉을 몇 박스나 보냈어요. 깜짝 놀라 전화했더니 옆에 있는 딸한테 ‘그것밖에 안 보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형석 수련의는 “의료진에게 고생한다며 직접 끓인 삼계탕을 갖다주는 환자 보호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2021년 말 ‘번아웃’ 사망감으로 버터

여기에 적십자의 일원이라는 사망감까지 더해져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적십자병원 26년 차인 이선미 간호사는 “적십자라는 브랜드 가치가 해외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적십자병원 직원은 나름대로 사망감을 갖고 임무에 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른 병원에선 이직률이 높아진 것과 달리 우리 병원의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도 밑바탕에 사망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5년 동안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한 최영애 수간호사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사회취약계층이 우리 병원을 많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지금도 ‘적십자정신’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적십자병원 말고도 인천, 상주, 영주 등 모두 4개 적십자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6개 병원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다. 현재 운영하는 감염병 전담병상 수는 서울 176병상, 인천 110병상, 영주 142병상 등 모두 428병상이다. 2021년 말까지 4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8836명이었다.

이주형 팀장은 “우리나라 전체 병실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병실 수가 10%가 안 되는데 코로나19 환자의 70%를 담당하는 점만 봐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글·사진 원낙연 기자

소상공인→취약계층 ‘황금도시락’에 ‘코로나 우울’ 아이들 마음 돌봄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다. 2021년 말까지 30만 명의 적십자 봉사원이 의료진, 환자, 격리자,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 3870만 장, 방호복 16만 벌, 의료용 장갑 320만 켤레, 손소독제 76만 개, 긴급 구호품 13만 세트, 비상식량 21만 세트, 안심 키트 1만 9000세트 등 방역물품과 구호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1004가 전해주는 황금도시락’ 캠페인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받아 소상공인에게 도시락 제작 후원금을 전달해 매출 증대를 돕고 소상공인이 만든 건강식 도시락을 적십자 봉사원이 취약계층 아동과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나눔 선순환 캠페인에 11억 원이 넘게 모였다.

2021년 말부터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아, 안녕!’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실직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돌봄 공백이 생겼다. 이들 가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15개 대한적십자사 지사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정의 자녀 학습비(가구당 30만 원) 등 생계 지원과 더불어 전문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지역아동센터 325곳에 30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00장을 지원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의 마음 돌봄에 앞장서고 있다.

☑ **소상공인 살리기** ☑ **사각지대 해소** ☑ **오미크론 대응** 추경 16.9조원… 소상공인 300만원·특고 등에 100만원씩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체계 보강을 위한

재정 수요도 추가 발생한 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배경이다.

2022년 첫 추경 주요 내용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6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9000억 원 늘어나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체계 보강을 위한 재정 수요도 추가 발생한 게 이번 추경의 배경이다.

또 강한 경제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더 늘어난 2021년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히 공급할 필요성도 생겼다. 추경을 반영하면 2022년 재정지출 총예산은 607조 7000억 원에서 62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1.9% 증가한 규모다.

손실보상금 보정률 80%→90%로 상향

유례없이 이른 추경을 긴급 편성하게 된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중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방역과 민생을 함께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약 320만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을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2022년 2월 14일 기준 약 303만 명에게 3조여 원을 지원했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체 약 41만 곳에는 방역 조치로 발생한 매출 감소를 보정해주는 손실보상금을 1월 19일부터 2월 11일까지 업체당 500만 원씩, 모두 2조여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에 더해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지원 예산은 13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10조 원에 이르러 가장 크다. 1차 방역지원금보다 대상과 금액, 범위 등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1차의 320만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자와 함께 그동안 과세 자료 부족으로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간이과세 영세사업체 10만 개, 연평균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숙박·음식점업과 학원,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 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방역지원금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2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지급 개시를 시작했다.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 한겨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손실보상 지원 강화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는 기준 개념인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2022년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식당이나 카페 등 ‘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원 제한 시설과 2022년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는 소상공인 업체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해서는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고 100만 원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과는 별개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에게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4000억 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방과후강사,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면서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인택시 소속 기사 약 7만 6000명,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약 8만 6000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 예산 1300억 원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씩 4만 명에게 추경으로 지급한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및 인디밴드 공연 333건을 개최할 수 있는 지원금 100억 원, 한국영화 개봉 지원 82억 원, 예술공연단체 대관료 지원을 위한 기금 변경 재원 40억 원도 추경에 담겼다.

전국 소규모 공연장 512곳에 대한 ‘방역 지킴이’ 지원(55억 원), 여행업계 휴직자나 실직자 3000여 명을 활용한 관광지

방역 지원(396억 원)도 이뤄진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1000명과 영화 제작·배급 인력 1000명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각각 110억 원씩 투입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및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을 1만 4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1조 1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최대 2만 5000개로 확충한다는 병상 확보 비상계획에 따라 추경을

통해 4000억 원을 더 늘려 1조 5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는 데 4000억 원, 중증·경증 환자를 위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을 더 구매해 총 16만 명분을 확보하는 데 약 2300억 원의 추경이 반영됐다.

오미크론 대비 방역 보강 1.3조 원 증액

코로나19 환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재원으로 2022년 본예산에는 2400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확산 속도, 방역·의료 대응체계의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대폭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본예산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한 1조 7000억 원으로 관련 예산을 늘렸다.

또 전국 선별진료소에 1452억 원을 투입해 하루 100만 건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자가검사키트를 확충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 명에게는 2개월 동안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 580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일선 보건의로 인력 2만 명에게 '감염관리수당'(하루 5만 원)을 지원하는 기간과 선별·임시검사소의 검사 인력 1만 4000명에게 활동 여유 지원비(하루 1만 원) 지원 기간을 2022년 9월까지 연장하기 위한 추경도 66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 11조 3000억 원과 특별회계의 세제영여금, 공공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본예산 기준 54조 1000억 원이었던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70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5%에서 3.2%로 높아진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정부부채+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본예산에서 1064조 40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추경 편성에 따라 1075조 7000억 원으로 11조 3000억 원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로 본예산에서 추정치(50.0%)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총량이 증가했지만 정부가 추경안에서 명목 GDP 기준 2022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2%에서 4.6%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채무 비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이다.

2022년 추경 규모·세부 내역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안 14.0조 원 ➡ 국회 확정 총 16.9조 원

①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5조 원

소상공인 지원 12.8

• 손실보상 2.8

–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추가

• 2차 방역지원금 10.0

–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요건 확대

– 연매출 10억~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대상에 추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

•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10.4

•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100만 원) 0.16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 원) 등 0.09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 돌봄 지원(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 0.09

② 방역 지원 2.8조 원

• 2.5만 개 수준 중증 환자 병상 확보 0.4

• 치료제 추가 구매 0.6

–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총 100.4만 명분 확보

–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 추가 구매. 총 16만 명분 확보

•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

•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0.2

• 방역 인력 지원 0.1

③ 예비비 0.6조 원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의 확장적 기초를 유지하더라도
경제의 성장 동력도 키워 세수 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년 추경 지원 일정			자료: 기획재정부
2차 방역지원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사업 공고(2월 22일)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2월 23일)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보상기준 의결(심의회, 2월 23일) •고시 행정예고(2월 넷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3월 초) •기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신청자 신청(3월 말)→지급 개시(5월 중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자체 사업공고(3월 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 말) 돌봄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3월 중순~) •가족돌봄지원(3월 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 초~)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 자원 마련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해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 비교에서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22년 주요 7개국(G7)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 139%, 주요 20개국(G20) 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0개국의 평균은 132.8%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정 적자 폭이나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 또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적고 느리다.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경제권일수록 두 자릿수의 재정적자 비율을 감수하며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쳤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증가 폭이 적었다. IMF의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재정정책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비중이 13.6%로 G20 내 10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심지어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스페인(18.5%)보다도 지출 비중이 낮았고 지출 총액도 가장 적었다. 이 때문에 IMF는

“한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선택적 지원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가속화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정지출 증가 폭이 적다 보니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것은 당연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예상치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은 12.4%포인트인데 이는 같은 기간 분석이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평균 증가 폭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경제회복과 함께 균형재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지출의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재정의 건전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의 확장적 기초를 유지하더라도 경제의 성장 동력도 키워 세수 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박순빈 기자

디지털 식품 제조·물류 시스템 도입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생산공정 스마트화로 지역 살리고 환경 지키고

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농산물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대표 오천호)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물류 최적화를 이뤄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선정됐다.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연령대에 맞춘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성과 공감도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스마트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살리기,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친환경 이유식 17개국에 수출

2012년 설립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사업 첫 해 매출 1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2020년에는 1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남 하동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수출용 이유식, 영유아 식품을 개발해 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 등 1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자체 쇼핑몰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해 납품 중이다. 특히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 이유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오천호 대표가 2012년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하동으로 귀향하면서 시작됐다. 오 대표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처음 농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나 1년 만에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았다. 하동으로 귀향해 신사업을 구상하던 오 대표는 죽 전문점 운영 당시 고객들이 '이유식용으로 쓸 테니 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던 경험에서 친환경 이유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을 설립했다.

창업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및 벤처기업 인증 등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사업 다각화와 공정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중기부와 중진공의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통한 신규공장 증축,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 해협(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와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해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의 이유식 |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스마트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살리기,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다.”

스마트 제조·물류 시스템을 도
입한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직
원들 |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지원을 통해 경사식 니더(반죽기), 로봇설비, 자동충전시스템 등을 도입해 하루 5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해졌고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라인을 구축해 생산성은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디지털 선별 시스템(Digital Picking System)을 도입해 하루 택배 7000상자의 물류 운송이 가능해 디지털 기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 통해 재료 확보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도입했고 식품 제조사의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데이터 기반 출하 예측 관리 등 식품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이유식 제조설비 온도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 보안을 위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시스템을 한층 발전시켰다.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자연 환경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하동군 반경 30km 안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 이유식, 산골간식 등 영유아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재료는 유기농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는데 201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5개 농가였던 계약재배 농가가 지금은 70여 농가로 늘었다.

오 대표는 “이유식 재료 외에 영·유아용 간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배즙·알밤·꽃감 등도 100% 하동 농산물을 구입·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고품질의 농산물 재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판매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한층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00%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으로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 디지털 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찬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설계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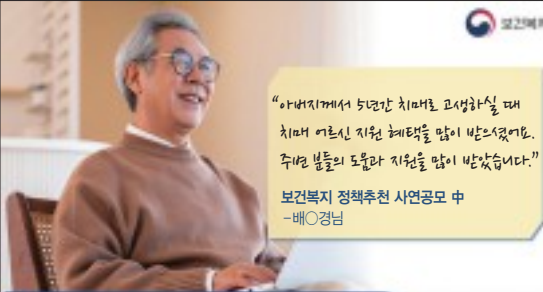
●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치매로부터 모두가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기

매년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바로 '치매극복의 날'이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야. '치매극복의 날'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념행사도 열고 있어.

정부는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2008년 9월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1)을 발표한 후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에 시동을 걸었어.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등 4대 사업목표를 중점 추진했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의 조기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한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진료·약제비지원사업 등을 시작했어. 2011년 8월에는 치매 정책의 계획과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치매관리법을 제정·공포했지. 기존 노인복지법의



“아버지께서 5년간 치매로 고생하실 때 치매 어르신 지원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추천 사연공모 중
-배○경님

‘치매환자쉼터’ 추천합니다 ♥

치매악화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치매환자는 쉼터를 이용하면서 사회적 접촉 및 교류가 증진되고, 치매환자가족은 돌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입소 우선
※독거나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종일반의 경우, 식비의 30% 이용자 본인부담
효과가 검증된 비약물치료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훈련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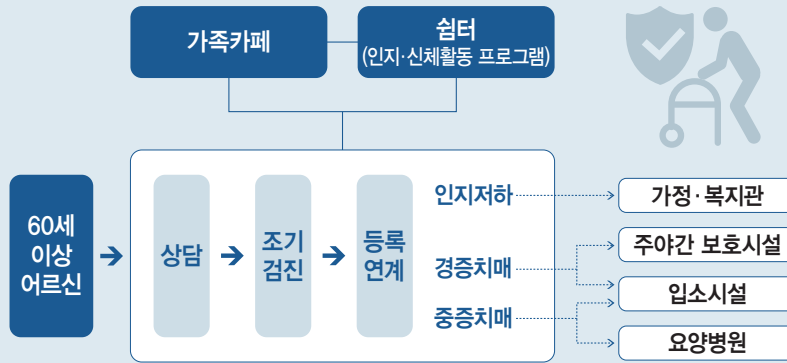
문의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던 치매관리사업이 치매관리법을 기반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정책적 당위성까지 마련한 셈이지.

2012년 7월에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을 발표했어.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4대 사업목표를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는 물론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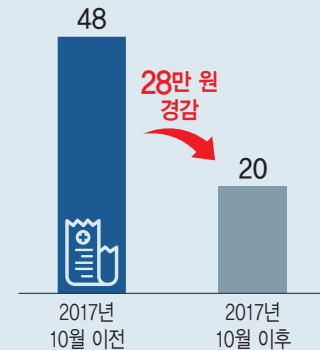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2021년 8월 기준 368만 명 이용)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액 경감

(연평균, 단위: 만 원)



프라 확충,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확정하고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대비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치료 및 보호를 강화했어. 이를 바탕으로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설치와 함께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장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

국가 돌봄 차원으로 치매 문제 해결 노력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은 1차와 2차 계획에서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연속적인 치매환자 돌봄경로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어.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삼았지.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새

정부 출범 6개월도 안된 2017년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 계획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하지.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야.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렸어.

치매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 했는지 알아? 취임 한 달도 안된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직접 밝혔어.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환자에게 전문 영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새 정부 출범 6개월도 안된 2017년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어.

도입 등이 핵심 과제야.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뤄진 성과 중 대표적인 것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단위 보건소 내의 치매상담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치매관리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점을 꼽고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의 그림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지.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문 대통령이 직접 설계자를 자처한 이유는 뭘 거 같아?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국가가 해결해야 한 주요 국정과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해서 그런 거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발표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해. 눈을 돌려서 WHO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전 세계 치매인구는 약 5000만 명인데 2050년에는 1억 5200만 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는 74만 8945명으로 2024년 100만 명에서 2050년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치매 정책은 한 마디로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표어로 요약할 수 있어. 크게 네 가지 줄기로 정책이 추진됐지.

우선 첫 번째는 의료지원 강화야.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을 60%에서 최대 10%까지 줄이겠다는 거지. 두 번째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야. 무료 치매선별검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이 핵심이야. 세 번째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야. 인지기원등급 신설, 경증 치매까지 지원 폭을 대폭 늘리는 거지. 마지막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야. 치매안심마을 전국 339곳 운영이 대표적 사업이지.

전문가들이 꼽은 지난 4년간 이뤄낸 가장 큰 업적은 크게 두 가지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치매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이지.

치매환자 곁에 국가가 함께 합니다

숫자로 보는 치매국가책임제

256개

(2021년 9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설치 수

※ 본소 188개 추가 운영(2021년 8월 기준)

393만 명

(2021년 5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누적 이용자 수

35만 명

(2018년 1월~2020년 12월)

치매진단용 신경인지검사·
MRI 건보적용 혜택자 수

0원

(2021년 9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비 및 진단검사비

10%

(2017년 10월~2021년 8월)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72만 원

(2017년 10월~2021년 8월)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
1인당 본인부담금 평균 감소액

#치매국가책임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 예방+진단받고 싶다면?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 방문

치매 진단 받으셨다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약재비+진료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신청 근처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뒤를 이을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길 기대해 보자고.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의 경우는 의료 지원비를 대폭 늘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크게 완화했지. 이 부분은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에도 포함되면서 기존 20~60% 수준에 달하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됐어.

또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도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진단검사 비용도 상급종합병원 기준 100만 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 원 이하로 줄었어.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

치매 관련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지. 지금까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어.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했지.

여기에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어.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야. 아울러 장기요양 시설 지정정신제 도입과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거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은 사실 탄생 때부터 남달랐어.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야. 문 대통령이 특히 이 정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점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

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책적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어. 사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적극적이었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요양원을 직접 찾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어. 이 자리에서 한 요양원 종사자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를 대신할 새 용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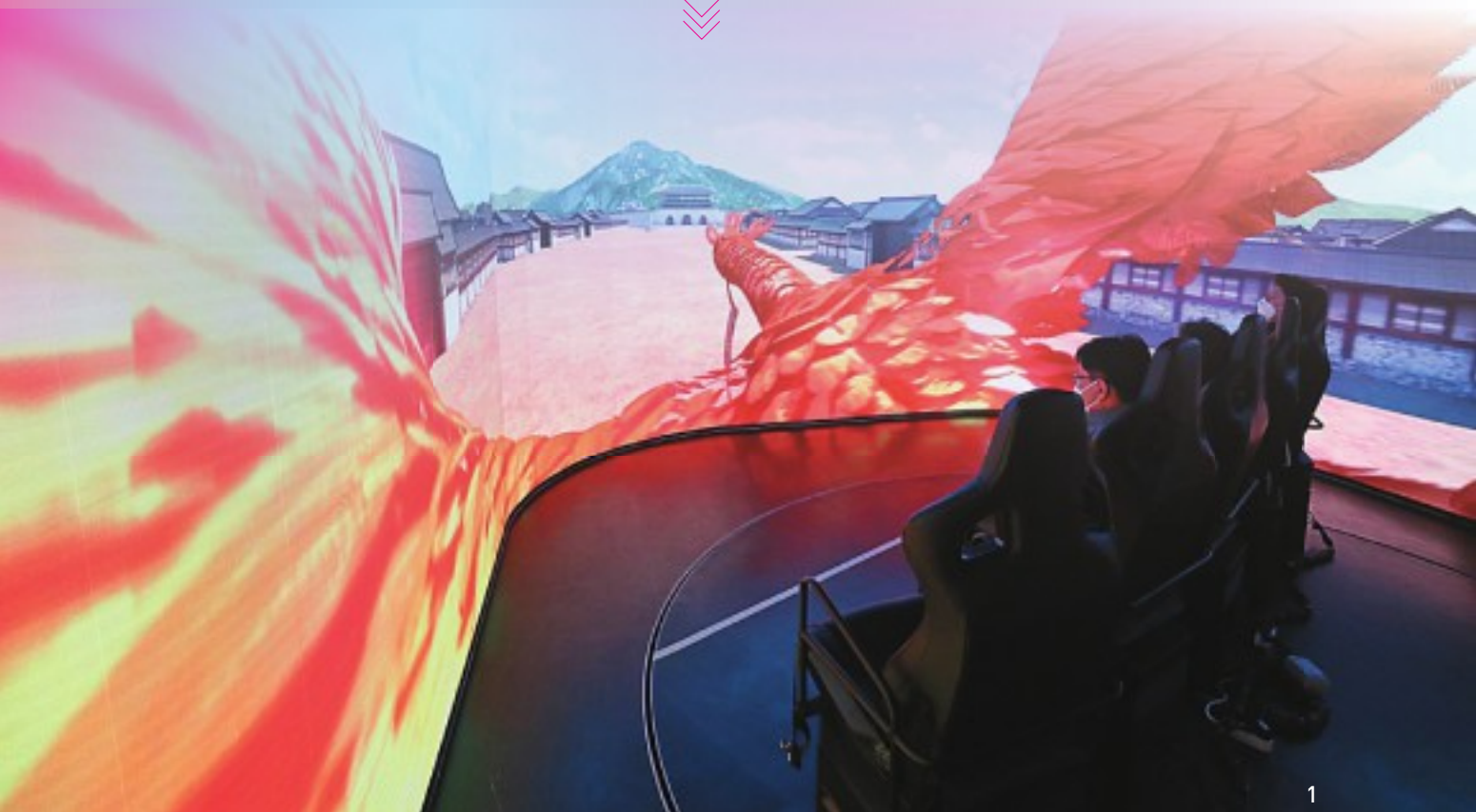
문 대통령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 작명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가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6년 10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연설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라는 문구를 없애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적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회상했어.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케어’를 포함해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라며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뒤를 이을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길 기대해 보자고. ●

이현호 <서울경제> 기자



1

역사·문화·관광 중심 광화문, 실감콘텐츠로 물들다

4차원과 증강현실 활용한 ‘광화시대’ 체험기

역사와 문화, 관광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이 5세대(5G) 첨단기술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관광 콘텐츠와 첨단기술 콘텐츠를 바탕으로 광화문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중심지로 만들어 우리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선보였다.

광화시대는 2021년 12월 17일 1차로 공개한 ‘광화풍류’(가상과 현실,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실시간 공연)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4일 2차로 도심 속 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 인공지능 안내소 ‘광화인’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 열었다.

이어 2월 4일에는 3차로 광화문을 여행하며 즐기는 게임 ‘광화담’, 시공간을 탐험하는 ‘광화전차’, 시민과 공감하는 증

강현실(AR) 나무 ‘광화수’, 광화문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상호작용 증강현실 콘텐츠 ‘광화경’을 공개했다. 총 8종의 실감콘텐츠 중 마지막인 ‘광화벽화’는 2월 25일에 공개됐다. 4차원과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로 인해 광화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장을 다녀왔다.

도심 속 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

“엄마~ 신기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발아래 꽃잎들이 흩날리고 나비가 나를 따라다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진행된 도심 속 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전시장 바닥과 벽면이 아름다운 풍경의 미디어 캔버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바닥의 풍경들은 관람객들이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마치 살아 있는 그림처럼 움직였다. 이런 신기함 덕분에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4차



1 시간을 탐험하는 미래형 '광화전자' 2 미션투어 게임 '광화담'(광화문) 3 미션투어 게임 '광화담'(세종문화회관) 4 인공지능 광화문 안내 센터 '광화인'

“하루 종일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전시장에 들어왔는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맑아졌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

원 세상에 있는 것처럼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이날 광화원을 방문한 젊은 연인은 “날씨가 추워 우연히 메트로미술관에 들렀는데 전시가 훌륭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아트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지 전혀 몰랐다. 이런 고급 전시가 무료라니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는 직장인이 모 씨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전시장에 들어왔는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맑아졌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실감형 인공지능 안내 센터 ‘광화인’

경북구역 메트로미술관에서는 실감형 인공지능(AI) 안내 센터인 ‘광화인’도 체험할 수 있다. 광화인은 그룹 샤이니의 멤버 민호가 모델로 나온다. 입체영상 기법으로 촬영된 민호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대화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광화문 인근의 문화유산, 주변 관광지, 샤이니 민호의 개인적인 이야기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기자가 직접 광화인의 부스 안으로 들어가 인공지능 모델 민호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 기자가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자 민호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눈앞에 있는 걸 씹지도 않고 다 먹어서 친구와 싸운 적이 있을 정도로 복숭아를 좋아해요”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진짜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명 스타와 직접 대화하는 걸 신기해한다”면서 “관광객들은 주로 민호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 경북궁 근처 맛집, 광화문 인근 유명 관광지 등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1월 14일 공개된 실감콘텐츠 ‘광화원’과 ‘광화인’은 5G 기술



5·6 도심 속 미디어아트 정원 광화문 7 광화문역에 있는 광화시대 체험자센터

로 이뤄진 화려한 실감콘텐츠 덕분에 관람객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배승환 사무관은 “광화문과 광화인은 하루 평균 300명 이상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하루 12시간 운영하는데 수용 가능한 최대의 인원이 입장하고 있다. 광화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가족 단위 관광객, 연인, 근처 직장인들에게도 반응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광 화 문 일대 미 셴투어 게 임 ‘광 화 담’

2월 4일 공개된 ‘광화담’, ‘광화전차’, ‘광화수’, ‘광화경’은 어떤 실감콘텐츠로 구성돼 있을까? 광화문 일대를 탐험하며 즐기는 미션투어 게임 ‘광화담’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흥미진진한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광화담은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종이 맞지 않을 경우 광화문역 내에 위치한 ‘통합알림터 및 체험자센터’에서 무료로 단말기를 빌릴 수 있다.

휴대전화에 광화담 앱을 설치하고 광화문 곳곳을 누비며 미션투어 게임을 시작하면 된다. 광화담 미션투어 게임이 가능한 곳은 광화문,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광장), 세종문화회관, 청계천 등이다.

기자가 콘텐츠 체험을 위해 광화문 앞에서 광화담 앱을 작동시켰더니 광화문의 하늘 위로 파란 용이 나타나 하늘을 휘저었고 용을 공격하는 적들을 빨리 제거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마치 입체적인 온라인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기자와

함께 광화문 앞에서 미션투어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은 “집에서 혼자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재미있다”며 “광화문에 나타난 용이 멋있어서 오랫동안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리를 옮겨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담 앱을 작동시켰더니 이번에는 ‘음악이 흐르는 계단’이라는 게임이 활성화됐고 임무를 마치고 나면 게임 속 캐릭터들과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했다. 또한 광화담 미션투어에서는 광화문 일대의 유적들을 찾아다니며 동전을 수집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게임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시 공 간 을 탐험하는 미래형 ‘광 화 전 차’

광화담 미션투어를 하다가 세종문화회관 인근 세종로공원에 도착하면 시공간을 탐험하는 미래형 ‘광화전차’도 체험해보기를 추천한다. 광화전차는 4차원 체험 기기에 탑승해 파노라마 화면으로 광화문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과 수중세계, 우주 등의 콘텐츠를 10분 동안 감상할 수 있다. 특히 360도 회전 기술을 적용한 의자에서 회전, 상승, 진동 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놀이 기구를 탄 듯한 재미도 만끽할 수 있다.

이날 광화전차를 찾은 네 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광화전차를 타고 나오면서 “광화문이 엄청 재미있다”고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광화전차는 광화시대 누리집에서 예약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실감콘텐츠 '광화수', '광화경', '광화벽화'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지나 청계천과 서울광장까지 광화담의 미션투어는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진다. 청계천과 서울광장에서든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땅속에 숨겨진 동전 수집하기도 할 수 있다.

프레스센터 앞에 도착하면 '광화수' 조형물도 만날 수 있다. 광화수는 5미터 정도의 조형물에 증강현실과 대량자료(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참여형 콘텐츠다. 물리적인 조형물 위에 휴대전화나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는 증강현실 나뭇가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나뭇가지와 열매는 전 세계에서 광화시대 누리집에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곱 가지의 감정에 따라 구현되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화려하게 빛난다.

'광화경'은 광화문과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숨은 이야기를 증강현실로 구현한 놀이학습 콘텐츠다. 휴대전화로 해당 장소를 인식하면 관련 역사와 정보가 재생된다. 또한 광화경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 외에 인기 캐릭터 '뽕수' 등이 증강현실로 등장해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한다.

총 8종의 실감콘텐츠를 선보이는 이번 광화시대의 마지막 콘텐츠인 '광화벽화'는 2월 25일 공개됐다. 광화벽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외벽에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으로 구축돼 사람들이 모이고 드나드는 광화문 거리에서 광화문의 역사, 시간, 이야기를 입체감 있는 미디어아트로 나타냈다.

배승환 사무관은 "광화시대는 우리나라의 실감콘텐츠가 얼

광화시대 운영과 예약 안내

'광화원', '광화인', '광화전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자 등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광화원'은 동시 관람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광화인'은 15분 단위로 4명씩, '광화전차'는 15분 단위로 5명씩 입장할 수 있다. 모든 관람객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람예약은 광화시대 누리집(www.gwanghwasadae.kr)에서 가능하다.

'광화수', '광화담', '광화경'에 대해서는 광화문역 '광화시대 체험자센터'에서 이용자들을 지원한다. 체험자센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각각의 체험 안내는 물론 '광화담' 전용 응용프로그램 설치 안내, '광화수' 증강현실 안경과 '광화경' 체험 전용 단말기 무료 대여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광화경' 전문 안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화시대 이용 관련 문의는 02-2068-1176.

마나 발전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야외에서 체험하는 광화담과 광화수 등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민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5G 기술력으로 구현된 다양한 콘텐츠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 김민주 기자,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MZ세대가 이끄는 메타버스 ‘청년이 바꿨지’

청년 전담 부서가 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9월 9개 정부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9개 전담 부서는 하나의 팀으로 17건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2021년 11월 발표했다.

그동안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한 불편하고 부당한 제도를 여러 부처가 협업해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공감>은 전담 부서장의 목소리를 통해 부처별 세부 정책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2022년 1월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세계적 가상세계(메타버스) 기업 로블록스에 K-팝 저작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자들이 만든 게임방에서 K-팝이 재생되는 건 물론 우리나라 가수들의 사진이 무단복제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K-팝 댄스에 대한 안무 저작권, 아티스트 이름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로블록스는 2021년 미국의 음악출판협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2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문제는 메타버스 관련 법적 분쟁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가상세계에서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별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 의존하다 보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보호에 힘 쏟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예술인이 제작한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가 위외 사례와 같은 저작권침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는 메타버스와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보호를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이후 첫 번째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로 삼았다. 이하늘 문화정책과 청년문화정책팀장은 관련 산업 육성 측면에서 메타버스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기업명을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 기업을 표방하고 나섰어요.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대기업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메타버스와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보호 지원

현황 ▶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으나 복제가 용이해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문제 발생

개선 ▶ ①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단(360명) 통한 메타버스 주요 플랫폼 상시 점검
② 저작권침해 신고 접수 시스템(www.copy112.or.kr)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1588-0190) 통한 메타버스 저작권 상시 대응 강화
③ 1인 창작자, 신생기업 등 저작권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공익 목적 저작권 피해구제지원단 운영(3~12월)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는 등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걸로 보이죠. 메타버스는 그동안 없던 새로운 형태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건 물론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반면에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생길 걸로 예측되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보호 방안은 크게 점검(모니터링)과 신고, 상담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문체부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단 360명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주요 플랫폼을 상시 점검한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접수시스템(www.copy112.or.kr)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전화 1588-019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1인 창작자와 신생기업 등 저작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5월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청년이 바꿨지-문체부'라는 이름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미지는 당시 메타버스 화면 갈무리 | 문화체육관광부

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저작권 피해구제지원단도 3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현직 변호사가 참여하는 지원단은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을 돕는다.

가상공간서 청년 예술인 모여 정책 제안

한편 문체부는 2021년 5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통해 '청년이 바꿨지-문체부'라는 이름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는 9월 중 실제 사업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는 원래 전국에서 지역별로 거리공연 팀을 공모해 문체부가 지원 하던 것인데 공연 장소를 가상의 공간으로 옮겼다. 청년들은 메타버스에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상인물(아바타)로 참여해 춤추고 박수 치는 등 실제 공연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정부는 이같이 앞으로 청년들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계인이 우리나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집중 확산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한

복·한식·한옥 등 전통 문화생활 및 강강술래 등 전통놀이 체험 콘텐츠 제작 지원(30억 원) ▲공연·전시 분야 창작 활동 지원(17억 원) ▲게임·애니메이션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사업화 지원(44억 원) ▲디지털 K-패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23억 원) 등이다.

더불어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난 데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에 세종학당을 개설해 우리말과 문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하늘 팀장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비대면 사회에서 메타버스 등 새로운 문화예술시장이 청년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화는 주요 여가 활동인 동시에 청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삶의 동력을 찾는 수단이에요.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도 커요. 청년문화정책팀은 청년정책 전담 부서로서 청년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2022에는 OTT 특성화 대학원이 설립될 예정이에요. 연간 200만 원씩 3000명에게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주고 2023년까지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펀드도 운용하죠.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디지털 융합 등 새로운 예술 활동을 시도하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길 응원합니다.”◎

조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와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보호를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이후 첫 번째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로 삼았다.**

주머니 든든 사회 첫 발 내딛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해볼까?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②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

국무조정실은 1월 청년이 꼭 챙겨야 할 핵심 청년정책을 한데 모은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안내서를 배포했다.

'청년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 대상별로 정책을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구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 ▲교육지원이 필요한 청년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이에 <공감>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제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재테크 경험이 많지 않으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보다 안정적 투자와 저축 위주로 하려면 뭐가 좋을까...'

회사 생활 3년 차인 오재화 씨(27)는 재테크 정보를 찾던 중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게 됐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근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는 '청년희망적금'. 2년간 50만 원 내로 자유롭게 적금을 부으면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에 납입액의 2%, 2년 차에 납입액의 4%가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도 없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모으면 1200만 원. 여기에 은행계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니까 62만 5000원이고 저축 장려금이 1년 차에 12만 원, 2년 차에 24만 원이니까 총 36만 원을 더하면 2년 뒤 1298만 5000원을 받게 되네. 이자소득세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잖아? 왜 인기가 많은 지 알겠어. 나도 당장 가입해야겠다.'

3월 4일까지 요건 맞으면 모두 가입

오 씨는 당장 가입 조건과 절차부터 알아봤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면 직종이나 회사 규모에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도 국세청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2년 7월 전까지 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오 씨는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의 우대 금리를 비교한 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간단하게 가입을 마쳤다. 정부는 당초 38만 명의 청년

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가입 희망자가 대거 몰리면서 3월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월 28일부터 5부제 관계 없이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오 씨는 요즘 보기 어려운 소득 공제 혜택을 준다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주목했다.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3~5년간 개인이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가입 이후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 양도할 경우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된다.

'납입액이 연 최대 600만 원이니까 40%면 240만 원. 여기에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의 세율 16.5%를 적용하면 39만 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구

**정부는 당초 38만 명의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가입 희망자가 대거 몰리면서
3월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 100%이하 연소득 600~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
(본인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소득 기준 면제)

**본인저축액(월 4만원) 대비 수급자·차상위자는 1:3,
차상위 초과자는 1:1 매칭 정부지원금**
→ 3년 만기 시 720만원 ~ 최대 1,440만원(이자) 수급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합니다

총급여 3,600만원(총합소득 2,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지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가입 직전 3개월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액에 최대 50만원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이라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총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지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월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연도 납입액에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군 복무중인 장병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현역장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022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전역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시 1,000만원 형성 지원**
(기본 720만원 + 정부지원금 280만원 + 이자)



출연소, 신청교육기관 : 참여은행에서 무대 방문하여 가급
일반부대 : 추가, 의술 등 출역시 가업자력 확인시 지원후
은행에서 가업부담금 대리가입 가능)

나. 납입액에 대비하면 6.6%는 무조건 초과수익이 나는 거네. 저축 외에 투자도 해볼 생각이었으니 이것도 괜찮겠는걸?

군인도 최대 1000만 원 목돈 안고 전역

한편 정부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2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1:1로 연계해 지원한다. 최대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후 720만 원에 이자수익

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특히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3의 매칭 지원금 적용 대상이 된다. 3년간 36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세 배인 1080만 원을 지원해 총 1440만 원을 돌려받는다라는 얘기다. 연 소득이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군 장병은 2022년부터 5%대 고금리 정기 저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저금'을 활용해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군 복무 기간 최대 4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전역 3:1로 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

을 지원하고 여기에 1% 이자지원금까지 더해 준다. 예를 들어 육군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40만 원을 납입하면 5% 은행 금리에 1% 이자지원금을 합해 754만 원이 되고 여기에 정부 매칭지원금 248만 원까지 더하면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다. 국방부는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가족이 대리 가입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반기 중 '비대면 저금 가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장병내일준비저금이 성공적인 사회진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윤 기자

검찰 사칭하고 금전 요구 받으셨나요? 핀센터 010-3570-8242로 연락하세요!

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제도혁신 성과를 수해 현장과 수해자의 말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보이스피싱 감별 센터를 만들어 범죄 예방에 나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민원제도 혁신 사례입니다. <편집자 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가짜 검사 김민수’를 잡아달라고 한 국민청원이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전북 순창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돈을 뜯기고 사흘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사연은 끔찍했다.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사칭한 이들은 번갈아가며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압박했다.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검사 신분증을 보내 믿게 만들었다. 조직적이고 정교한 범행 수법에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이스피싱에 당한 줄 모르고 혼자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검사 신분증이 진짜인지 감별해주는 장치가 있었다면 청년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핀센터’ 통해 365일 24시간 피해 접수

2020년 한 해 기소된 보이스피싱 가운데 약 40%가 검찰을 사칭한 범죄였다. 처음에는 검사 이름만 사칭하더니 가짜 신분증, 가짜 재직증명서, 가짜 구속영장까지 등장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가짜 서류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이를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입게 된다.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보이스피싱이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범죄인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사칭 여부를 신속히 상담하는 국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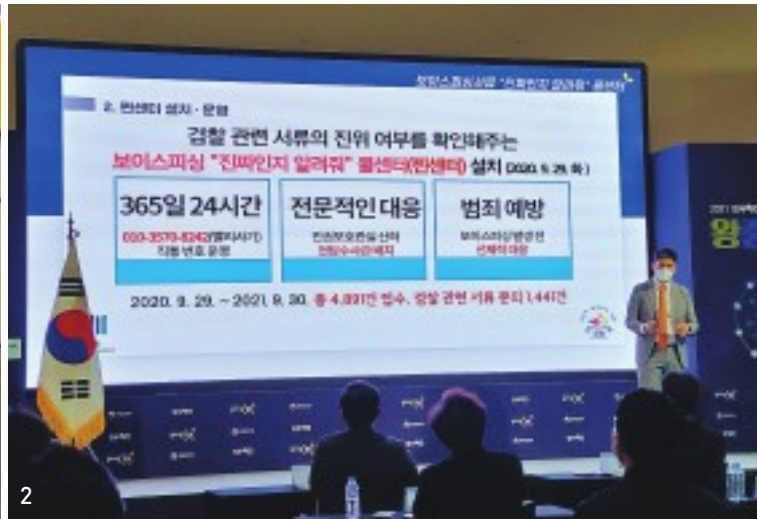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 인권 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핀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시작했다. 핀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 여부와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2021년 12월까지 총 7421건의 신고가 핀센터에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핀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 민원제도 분야에서 핀센터 사례로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았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 ✓ 검찰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핀센터 근무 모습.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2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 발표 모습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받은 검찰 관련 서류가 있다면 365일 24시간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핀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하기를 권한다.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내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억에 남는 피해 방지 사례를 두 가지 소개했다. A씨는 검사라고 신분을 밝힌 남성과 4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 남성은 A씨에게 “금감원에 재산을 등록해서 조사해야 하니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라”고 요구했다. 수사 공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은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요구대로 정기에금을 해지해 1000만 원을 인출했다. A씨는 다행히 돈을 전달하기 전에 핀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핀센터에서 남성이 보내준 공문이 위조임을 확인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B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가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한 장소로 가던 중에 핀센터에 연락했다. 허위 사실을 파악한 핀센터에서 112에 대신 신고해 피해를 방지했다.

신고 땀 타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사용해야 안전

국내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처음 발생한 건 2006년으로 알려져 있다. 범인들은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고 범망을 피해

갔다. 말단 조직원을 잡아들이면 그뿐 해외에 있는 총책임자는 또 다른 조직원을 모집해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제 존재하는 검찰 서류를 위조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고 발신 번호를 검찰청 전화번호로 조작하는 사례도 많다”며 수법의 정교함을 설명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받은 검찰 관련 서류가 있다면 365일 24시간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핀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하기를 권한다.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내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보이스피싱범과 연락했을 경우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으면 핀센터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사용해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

글 심은하 기자, 사진 서울중앙지검

즐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58.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일등 아닌 인권” 체육계 큰걸음

스포츠윤리센터는 지금

2020년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가 설립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윤리센터는 체육계의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을 통합하며 만들어진 독립적인 체육인 보호기구다. 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법률·임시주거지원과 예방교육, 국내외 스포츠윤리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9월 공식적으로 사건 접수를 시작한 윤리센터는 2021년까지 모두 1797건의 신고·상담을 접수했으며 472건의 신고 사건 중 246건을 처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843건(상담 647건·신고 196건), 비리 관련 사건이 717건(상담 441건·신고 276건), 단순 문의 등 기타 상담은 237건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윤리센터 권한 강화

윤리센터의 사건처리 속도도 설립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돼 1기 이사진 시기(2020년 8월~2021년 5월)에서 2기 이사진 시기(2021년 6월~)로 들어서며 월 평균 사건처리 건수는



스포츠윤리센터 홍보 포스터

7.7건에서 25.1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월 평균 사건처리 건수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안이 시행되며 윤리센터가 설립됐고 2차 개정안 시행(2021년 2월 19일)으로 윤리센터의 조사권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다.

윤리센터의 인력도 늘었다. 2022년 1월 현재 전체 정원은 26명에서 45명으로, 조사인력은 출범 당시 13명에서 상근조사관 충원과 퇴직경찰 위촉 등으로 30명까지 증가했다. 심의제도 또한 개선됐다. 피해유형에 관계없이 단

일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인권침해·비리) 심의소위원회를 분리, 운영하며 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체육관련 단체는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비리나 인권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아무 일도 없는 척’ 체육지도 현장에 복귀해 유사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센터는 2022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체육인 징계 이력 관리·활용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현장 감시 강화와 조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 9월 공식적으로 사건 접수를 시작한 윤리센터는 2021년까지 모두 1797건의 신고·상담을 접수했으며 472건의 신고 사건 중 246건을 처리했다.



2021년 12월 17일 스포츠윤리센터 대전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경기·경남·대전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30명) 위촉 및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는 경기와 경남,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건 해결 방안도 고민 중인데 처분 중심의 사건처리 외에도 사과와 합의, 금전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화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비리 및 인권침해 사전 예방 교육·홍보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활동도 윤리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윤리센터는 체육인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체육인은 1년에 한 차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신규 또는 추가 취득자는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이 발급된다. 또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인은 2년마다 한 차례씩 스포츠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의 모든 교육을 윤

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윤리센터는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홍보대사로 유명 체육인을 위촉하고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홍보대사로는 축구 스타 박지성을 비롯해 피겨스케이팅 곽민정, 스포츠클라이밍 김자인, 프로권투 최현미 등 체육인이 위촉돼 캠페인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 인권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윤리센터 서포터즈도 관련 콘텐츠를 제작·게재하며 스포츠 윤리 인식 확산에 앞장섰다.

하지만 윤리센터가 내린 결정과 실제 징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한다. 윤리센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이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권은 체육단체가 갖고 있어 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지거나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징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현숙 윤리센터 정책실장은 “스포츠공정위에 관련 규정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1주년을 맞은 2021년 8월 5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있다.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현황

자료: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본부

위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대표전화 1670-2876 | 팩스 02-6220-1377
누리집 www.k-sec.or.kr | 전자우편 with@k-sec.or.kr

경기지역사무소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0 스마트타워 1708, 1709
전화 031-223-2876 | 팩스 031-225-2878

경남지역사무소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16 태신드림시티 201
전화 055-311-2876 | 팩스 055-339-2876

대전지역사무소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48 매그놀리아 2307
전화 042-486-2876 | 팩스 042-486-2877

없어 관련자 징계가 어려워 보일 경우에는 제도개선 권고도 함께 하고 있지만 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체육회 등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에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엔 사건처리 속도 더욱 높일 것”

윤리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낮아 피해자가 윤리센터 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상위 체육단체에 신고하는 경향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피해자가 체육단체에 신고를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사건을 인지한 체육단체가 그 사실을 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최근에는 체육단체를 통해 신고한 사건도 많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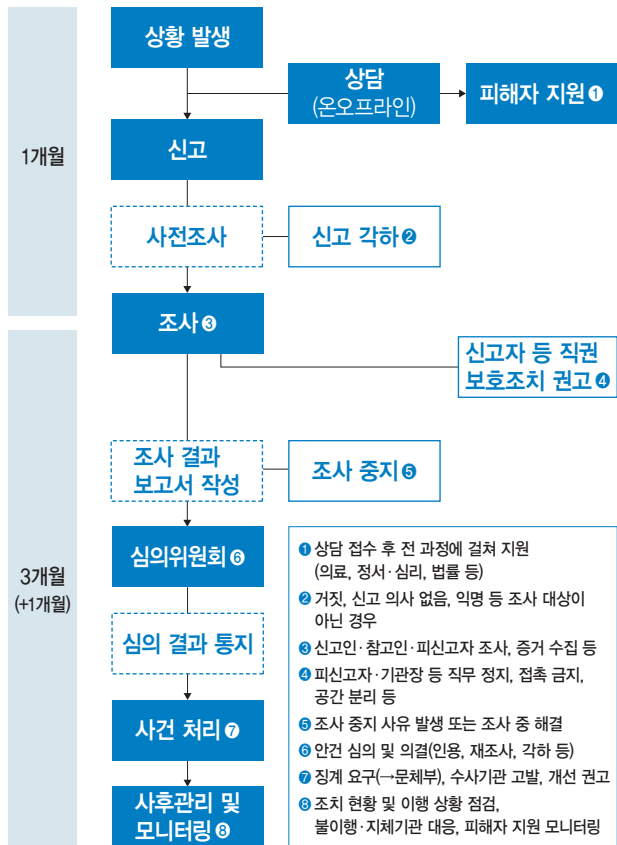
김 정책실장은 “일반 체육단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기 어렵지만 윤리센터는 상담을 시작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022년에도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역량 강화와 조사체계 일원화, 인권보호 기능 강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사건처리 속도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상담 및 조사 업무 흐름도

자료: 스포츠윤리센터



면 꼭 신고로 가지 않더라도 피해자 지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고 절차나 조사 절차로 넘어간다”며 “초기상담부터 사건 종료 시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점이 스포츠인권기구로서 윤리센터가 가진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윤리센터는 2022년에도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역량 강화와 조사체계 일원화, 인권보호 기능 강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인권·비리) 활성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사건 처리 속도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은 “2022년 이후에는 의무교육 법정시스템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간편상담·신고 운영으로 윤리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익명·가명으로도 신고·상담 가능

윤리센터는 상담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피해자가 상담만 받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의료, 정서·심리, 법률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학생이 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 또는 선수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고 이를 자신의 부모에게 알려 상담이 시작됐다면 윤리센터는 상담 시작과 함께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상담·신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가 전화·인터넷·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상담은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가명으로도 할 수 있으나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법률·의료·심리치료·임시주거지원 등이 이뤄진다. 피신고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법률 상담 비용을,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국가 상담기관을 연계해주거나 일반 상담기관 이용에 따른 상담비를 지원한다. 폭행 등으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분리조치에 따라 임시주거비를 지원하며 일시적으로 개인운동이 필요한 경우 체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윤리센터는 사전조사를 시작한다. 거짓이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해 사실상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신고는 각하되며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조사는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며 사전조사를 비롯해 조사관은 신고인과 소통하며 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조사관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현장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하며 조사 개시 후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 필요 시 신고자 등에 대한 직권 보호조치를 요청하는데 피 신고인이나 기관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와 접촉 금지, 공간 분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인권 사건은 인권 소위원회에, 비리 사건은 비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관련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나 수사요청, 지도자 자격 정지(취소) 등의 처분 요청을 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리센터의 결정문과 처분 요청서를 근거로 해당 체육단체 등에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체육단체는 해당 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윤리센터는 이러한 이행 결과를 추적·점검하고 있다.



감동은 계속된다

이제는 패럴림픽이다.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3월 4~13일)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뒤를 이어 감동의 스포츠 무대를 연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파라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총 6개 종목에서 50여 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이 경쟁한다. 올림픽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 3개 지역에서 대회가 열린다. 베이징동계올림픽에 판다 마스코트 '빙墩墩'이 있었다면 동계패럴림픽에는 등불을 본딴 '쉐룽룽'이 있다. '쉐'는 새하얀 눈을, '룽'은 포용·관용과 융합·친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개 종목 모두에 척수·시각·뇌병변·절단 및 기타 장애인 선수 32명, 임원 50명 등 82명을 내보내 동메달 2개를 목표로 열전을 펼친다. 17명의 선수로 구성된 남자 파라아이스하키가 가장 규모가 크며 이어 휠체어컬링(5명), 알파인스키(4명), 크로스컨트리스키·바이애슬론(3명), 스노보드(3명) 순으로 선수들이 출사표를 냈다. 최연소 선수는 알파인스키의 최사라(19), 최고령 선수는 휠체어컬링의 윤은구(53)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핀란드·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16위에 올랐다. 당시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좌식 7.5km에서 우리나라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신의현이 2연패를 노린다. 신의현은 2월 13일 노르딕스키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담감도 즐기려고 한다. 평창 때는 첫 패럴림픽이라 잠도 잘 못 자고 많이 떨었는데 이제 경험이 있으니 심적으로는 편한 것 같다"며 "2연패를 하고 싶다. 더 나아가 바이애슬론에서 60발 만발을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평창에서 동메달을 딴 파라아이스하키 팀도 두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다. 당시 주장이었던 한민수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다. 휠체어컬링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은메달을 땀고 2018년 평창 대회에선 4강에 올랐다.

투혼이 불뿔는다

이 선수를 주목하라

1992년 알베르빌동계패럴림픽에 선수 2명과 임원 3명을 파견해 동계패럴림픽 무대에 처음 나섰던 우리나라는 이후 대회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출전했다. 2018 평창 대회(금 1, 동 2)를 포함해 통산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일궜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패럴림픽은 선수들의 투혼이 팬들의 눈길을 끈다. 경기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에서는 결승점 통과 기록이 아니라 그 기록에 선수 스포츠 등급에 따른 핸디캡(경기 성적에 너무 큰 차가 생기지 않도록 등급에 따라 사전에 주어지는 조건) 요소를 곱해서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또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는 안내자(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며 질주해야 한다. 휠체어컬링에서는 남녀 혼성 한 종목만 열리며 빗자루질 없이 경기가 이뤄진다. 비장애인 국가대표 출신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돕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평창의 영웅’ 신의현 두 대회 연속 메달 도전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로는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두 종목에 출전하는 ‘평창의 영웅’ 신의현(창성건설·42)이 꼽힌다. 교통사고로 인한 좌절을 딛고 일어난 신의현은 평창 대회에서 금 1개(크로스컨트리 좌식 7.5km), 동 1개(크로스컨트리 좌식 15km)를 거머쥐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조준한다. 신의현은 바이애슬론 좌식 7.5km·12.5km, 크로스컨트리 좌식 10km·15km와 스프린트에 출전한다.

신의현은 2월 중순 국내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km와 7.5km에서 금메달을



크로스컨트리스키 신의현 | 한겨레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로는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두 종목에 출전하는 ‘평창의 영웅’ 신의현(창성건설·42)이 꼽힌다. 이번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조준한다.

땀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3km와 4.5km에서도 정상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꾸준히 몸을 만들었다. 평창 때보다 몸상태가 좋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장애인체육 귀화 1호 선수로 돌아온 원유민(창성건설·33)도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무대에 선다. 그는 “첫 패럴림픽이다. 최선을 다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말했다.

썰매를 타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는 파라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정상을 향해 뚝다. 우리나라는 A조(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 속해 있는데 조별리그를 벌인 뒤 4강에 오르는 게 1차 목표다. 우리나라는 2021년 체코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고 2018 평창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3피리어드(피리어드 당 15분씩)로 진행되는 파라아이스하키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는데 휠체어러키비로 다져진 김상락(43·경기도)이 전방에서 몸으로 막고, 장애인 육상에서 주목받았다가 전향한 골리 이재웅(26·강원도청)이 최후의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현황

일정	3월 4~13일
개최지	중국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
참가국	50여개 국(1500여 명)
대회 종목	6개 종목(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스키·바이애슬론·스노보드·파라아이스하키·휠체어컬링) 78개 세부 종목
슬로건	함께 미래로 (Together for a Shared Future)
마스코트	쉐룽룽(‘쉐’는 새하얀 눈을 ‘룽’은 포용·관용과 융합·친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선수단 구성 현황

선수단	6개 종목, 82명 참가(선수 32명)
목표	동메달 2개(2018년 평창대회 금 1개, 동 2개)
강세종목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파라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썰매를 타고 박진감 넘치를 펼치는 파라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정상 향해 뛴다. 우리나라는 A조(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 속해 있는데 조별리그를 벌인 뒤
4강에 오르는 게 1차 목표다.

수문장으로 골문을 지킨다. 결정력이 좋은 장동신(46·강원도청), ‘빙판 위의 메시’로 불리는 정승환(36·강원도청), 4회 연속 패럴림픽에 나서는 주장 장종호(38·강원도청)도 등극하다.

알파인스키 최사라 “꼭 시상대 설 것”

알파인스키에서는 시각장애 B2 부문에 출전하는 최사라(19·서울시장애인스키협회)가 주목을 받는다. 최사라는 2015년 대표선수 꿈나무로 뽑힌 뒤 2019년 프랑스 바호에서 열린 국제대회 회전, 대회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시력이 극도로 약한 최사라는 앞서 달리는 가이드가 무선 헤드셋으로 매 순간 코스 상황을 알려주면 그 신호에 따라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간다. 최사라의 가이드를 맡은 스키 국가대표 출신의 김유성 코치는 “비장애인 국가대표로 뛰었지만 따지 못한 메달을 최사라 선수와 같이 따 오겠다”고 말했다.

2018 평창 대회에는 나이 제한 때문에 시범선수로만 참여한 최사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경기에 임해 시상대에 꼭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B3)를 갖고 있는 장애인육상 선수 출신의 황민규(26·서울시장애인스키협회)도 평창 대회 회전 13위를 넘어 입상권에 도전한다.

알파인스키 활강, 회전, 대회전 등에 출전하는 지체장애 LW12-1 등급의 한상민(43·국민체육진흥공단)도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설상 종목 첫 메달(은)을 안긴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 그는 “마지막 패럴림픽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둬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벤쿠버 은메달’ 휠체어컬링 “큰일 낸다”

스노보드에 출전하는 이충민(36·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2



3

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2월 22일 경기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 알파인스키 최사라 3 파라아이스하키 대표팀 | 대한장애인체육회



4



5

4 스노보드 박수혁 | 한겨레 5 휠체어컬링 대표팀 | 대한장애인체육회

은 군 제대 뒤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상지 장애 UL 등급에 출전한다. 학창 시절 다재다능한 운동 능력을 자랑했던 그는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태권도 겨루기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는 “본업이 농부인데 농사로 다져진 힘을 보여주겠다. 후회없이 즐기고 오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최연소로 참가한 박수혁(22·경기도)도 두 대회 연속 스노보드에 출전해 기량을 뽐낸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휠체어컬링도 ‘큰 일을 낼 준비를 마쳤다. 선수들의 정신력 코칭을 담당하는 창용 교수(안동대)는 “대회가 다가오면 선수들이 압박감으로

장애인 스포츠 권리 신장 노력 동·하계 올림픽 동반 개최로 결실

장애인올림픽은 영어로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불린다. 패러라는 접두사는 “함께” 또는 “나란히”라는 뜻이며 여기에 올림픽을 붙여 올림픽과 평행하게 개최되는 패럴림픽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첫 패럴림픽 대회는 1960년 로마에서 시작됐고 이 때부터 4년마다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하계패럴림픽이 열렸다. 1976년에는 스웨덴의 외른셀스비크에서 1회 동계패럴림픽이 열리면서 동·하계 패럴림픽이 정착됐다.

이후 1988년 서울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1989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탄생했고 IOC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IPC가 패럴림픽과 세계대회 등을 직접 관장하게 됐다. 특히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대회 때 IOC와 IPC 위원장이 서명한 협약을 통해 동·하계 올림픽 유치국가는 반드시 패럴림픽을 동반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문화했다.

1948년 영국 런던에서 2차 세계대전 참전 상이용사를 모아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뒤 매년 행사를 진행했던 루트비히 구트만 박사의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신장 노력이 최고의 엘리트 무대인 올림픽에서도 인정을 받은 셈이다.

한편 이번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올림픽과 같은 연금과 포상금을 받는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 월 100만 원이나 일시금 67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은메달은 월 75만 원(혹은 일시금 5600만 원), 동메달은 월 52만 5000원(혹은 일시금 3920만 원)을 받는다. 메달을 여러 개 따면 추가 기여도에 따라 장려금이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금메달(6300만 원), 은메달(3500만 원), 동메달(2500만 원) 수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도자도 다양한 혜택을 본다.

면담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번 베이징 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넉넉한 팀 분위기를 설명했다. 고승남(37·의정부불링스톤)이 스킵을 맡았고 여성 출전자인 백혜진(39·의정부불링스톤)이 리드로 첫 투구를 담당한다. 선수간 소통과 호흡이 장점인 만큼 휠체어컬링팀이 우리 선수단에 메달을 안길 것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대하고 있다. ●

김창금 <한겨레> 기자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거짓말

미안
고래뱃속



귀가 순해져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순(耳順)에 가까워진 나이에 기분 좋은 색감의 그림책 한 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거. 짓. 말.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기억 속의 거짓말은 내게도 은밀한 긴장과 두려움의 에피소드로 남아 있지만 그림책으로 구현된 이야기 속의 거짓말은 소심하고 비겁한 모함이나 폭력이 아닌, 아이들이 내지르는 슬프고 외로운 함성 같았다.

미안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신중히 판단해 급류에 휩쓸리지 말고 낭설의 희생자를 만들거나 희생자가 되는 일이 없게 하자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 청소년을 주로 만나 심리 상담을 하는 나의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주인공들의 심리를 반영한 그림의 거친 선과 여백을 가득 채운 색감 그리고 보이는 행동 그 이면에 숨죽이고 있는 인물들의 심리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물렀다.

거기까지 상황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싶었다. 태경이의 거짓 모함

도 규리의 오해도 그리고 주변인의 날선 비난도 안타깝지만 살아가면서 온 나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 그럴 수 있다 싶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믿지 않았다.” “친구 괴롭힌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니?” “엄마에게 안기려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목구멍에 뭔가 막힌 듯 숨이 답답했다.

거기에는 지난 시절,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에 가까운 훈육을 자행하던 나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했고 “그래 봐야 어차피 믿어 주는 사람 없어요”라며 세상 사람을 향해 불신과 냉소적인 분노를 쏟아 내던 아이, 학교 폭력 가·피해자가 돼 상담실로 들어왔던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거짓말〉속 ‘나’의 엄마는 왜 그랬을까.

이 그림책은 그래서 지금 온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❶

박숙이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려야 한다

대영제국의 자부심

미술관은 한 나라의 자부심이자 긍지다. 그곳에 가면 그 나라의 국격과 기품있는 국민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관은 단순히 예술작품을 모아놓은 곳이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정신의 총화가 서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미술관이다.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런던에 가면 영국인의 자존심에서 잉태돼 오늘날 세계 유수의 문화관광 명소로 사랑받는 미술관이 있다. 바로 내셔널 갤러리다. 런던의 중심부 트래펄가 광장 한복판에 자리한 내셔널 갤러리는 설립 정신에서부터 미술관의 공익적 가치와 역할이 오롯이 구현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유럽의 유명 미술관들은 대부분 왕실이나 귀족들의 호화 컬렉션을 모태로 설립된 공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셔널 갤러리는 처음부터 영국의 자랑이 될만한 국가브랜드로서 미술관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호소한 가운데 범국가 차원의 활발한 기금 모금 운동이 전개됐고 수많은 개인 소장

1 런던 내셔널 갤러리 전경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2 트래펄가 광장 앞에 서 있는 조지 4세 국왕의 기마상 | ©Aaron Bradley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사진 출처: www.flickr.com/photos/aaranged/8976945715/>

3 내셔널 갤러리의 자연채광 천장 | ©MrsEllacott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자들의 기증을 토대로 미술관이 성장해온 점이 특징이다.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문화예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출발했다는 점에서 내셔널 갤러리는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립미술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국립미술관이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일체 간섭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본받을만하다. 오늘날 영국의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들이 기본적으로 무료입장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내셔널 갤러리의 설립 정신을 계승한 덕분이다.

——— 축구장 6개 크기에 유럽 회화 2300여 점 소장

1824년 영국 정부가 개인 컬렉션을 사들여 런던 팔몰 가(街) 100번지에서 문을 연 내셔널 갤러리는 1838년 지금의 트래펄가 광장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 개관한 뒤 여러 차례의 증·개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 1991년 신관으로 모습을 드러낸 세인트버리관을 포함해 서관, 북관, 동관 등 4개의 전시관으로 이뤄져 있다.

13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유럽 회화 23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유럽 미술사를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명품 컬렉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전시장에 거의 모든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점도 다른 미술관과 차별되는 특징이다.

런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데다 모든 상설 전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1월 1일과 12월 24일~26일 4일간을 빼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식성과 접근성이 단연 돋보인다.

내셔널 갤러리가 들어선 트래펄가 광장은 1805년 스페인 남서



2



3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문화예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출발했다는 점에서 내셔널 갤러리는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립미술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해안의 트래펄가 해상전투에서 영국군이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친 승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원래 왕실의 정원이었으나 조지 4세 국왕(1762~1830, 재위 1820~1830)이 1820년대에 수립한 재개발 계획에 따라 1845년 무렵 광장으로 변모했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은 신년 축하 행사가 벌어지는 등 영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다.

트래펄가 전쟁 당시 영국 해군을 지휘하던 중 전사한 넬슨 제독(1758~1805)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다의 제왕'이라 불린다. 트래펄가 광장에 세워진 50m 높이의 넬슨 기념비는 전쟁 영웅 넬슨의 업적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4

소장품 3분의 2가 기증·기부로 조성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예술 분야에서는 이웃 유럽 국가들에 뒤처져 있었다. 1793년 바다 건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열자 애써 자존심을 감추고 있던 영국 여론이 들끓었다. 19세기 영국 풍경화의 거장 존 컨스터블(1776~1837)이 국립미술관의 부재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영국 의회도 예술작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립미술관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역설했다.

1824년 마침내 영국 정부는 1년 전 사망한 금융사업가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존 앵거스타인의 소장품 38점과 런던 팔물 가 100번지에 있던 그의 저택을 사들여 그곳에서 내셔널 갤러리의 출발을 알렸다. 미술관의 작품 구매와 개인 소장자들의 계속된 기증으로 소장품이 늘어난 데다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31년 지금의 자리에 새로운 미술관을 짓기로 하고 1832년 건축가 윌리엄 월킨스에게 공사를 맡겼다.

6년 후인 1838년 트래팔가 광장 북쪽에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한 건물로 개관한 내셔널 갤러리는 네 차례의 증축과 개축 과정을 거치는 등 소장품과 전시 공간의 규모를 계속 확장했다. 1991년에는 사업가 세인즈베리 가문의 기부금으로 5층 규모의 신관을 건축했는데 세인즈베리관이다. 소장품의 3분의 2가 개인 소장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기증과 기부로 조성된 점도 내셔널 갤러리의 설립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셔널 갤러리의 특징은 연대순으로 소장품들을 상설 전시하는 것인데 세인즈베리관은 1260~1510년 작품, 서관은 1510년~1600

윌리엄 터너의 작품 대부분은

테이트 갤러리에서

‘터너 컬렉션’이란 타이틀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지만

대표작이자 내셔널 갤러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전함 테메레르 호’는 여전히

내셔널 갤러리를 지키고 있다.

년 작품, 북관은 1600년~1700년 작품, 동관은 1700년~1900년 작품을 각각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고흐와 모네, 세잔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동관의 인기가 높다.

내셔널 갤러리의 또 다른 특징은 영국 국립미술관의 원조이지만 정작 영국 회화는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영국 미술 작품만을 위한 별도의 국립미술관, 테이트 브리튼이 1897년 설립된 가운데

1996년 양대 국립미술관은 1900년 이후의 영국 회화를 테이트 브리튼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모든 작품이 같은 층에 전시돼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는 것도 내셔널 갤러리 관람 동선의 매력이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고흐의 ‘해바라기’,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반얀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 윌리엄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 호’ 등이다.

대표 소장품은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 호’

내셔널 갤러리를 얘기할 때 윌리엄 터너(1775~1851)를 빼놓을 수 없다. 터너는 컨스터블과 함께 19세기를 빛낸 영국 풍경화의 쌍두마차로 500점이 넘는 유화와 2000점의 수채화, 3만 점의 스케치 등 방대한 규모의 유품을 영국 국민에게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



4 트래펄가 광장의 명물 분수대

| ©CrisNYCa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5 윌리엄 터너, '전함 테메레르', 캔버스에 유화, 90.7×121.6cm, 1839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테이트 갤러리에서 '터너 컬렉션'이란 타이틀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지만 대표작이자 내셔널 갤러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전함 테메레르 호'는 여전히 내셔널 갤러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984년에는 윌리엄 터너의 이름을 딴 '터너상'을 테이트 브리튼에서 제정해 해마다 50세 미만의 영국 미술가에게 시상하고 있다. '터너상'은 국제적인 권위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상이다. 영국인들이 얼마나 터너를 사랑하는지는 2020년 2월 20일부터 20파운드 지폐의 모델로 등장했다는 데서 드러난다. 종전 모델은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1723~1790)였다. 또 BBC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터너로 밝혀졌고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전함 테메레르 호'가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터너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 <미스터 터너>도 개봉됐다.

'전함 테메레르 호'는 터너가 64세 때 그린 내셔널 갤러리의 수호신 같은 명작이다. 1805년 트래펄가 전투에서 맹위를 떨치며 영국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전투함인 테메레르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당시의 웅망한 모습은 간데없고 뼈대만 앙상한 초라한 몰골이다. 왜일까? 이 그림은 트래펄가 전투가 있던 지 30년도 더 지난 1839년에 완성됐다. 군함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수십 년의 풍상을 겪은 테메레르도 어쩔 수 없이 수명을 다한 것이다. 터너가 붓을 들을 당시 테메레르 호는 해체를 위해 마지막으로 정박 중인 모습이다. 원제가 '해체를 위해 예인되는 전함 테메레르 호'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터너도 테메레르 호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그렸

을 때 이순(耳順)을 훌쩍 넘긴 노년이었다.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과 명성을 찾을 길 없는 테메레르를 보면서 터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2차 세계대전과 내셔널 갤러리

루브르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내셔널 갤러리도 2차 세계대전의 전문이 감돌 무렵 소장품들을 웨일스의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보관하는 안전 조치를 취했다. 독일의 프랑스 침공 후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장품들은 웨일스 북부의 지하 채석장으로 다시 옮겨진 뒤 전쟁이 끝나고서야 트래펄가로 돌아왔다.

전쟁 중 미술관은 당연히 휴관이었다. 이때 영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미라 헤스(1890~1965)의 제안으로 내셔널 갤러리에서는 매일 오후 1시 클래식 음악 연주회가 열렸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공포에 떨던 영국인들에게 큰 위안이 된 연주회는 1939년 10월부터 1946년 4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 헤스는 영국인들의 긍지와 사기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1941년 대영제국 작위급 훈장(2등급)을 받았다. ●



● 박인권 문화 칼럼니스트

PIK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전 <스포츠서울> 문화레저부 부장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 <미술전시 홍보, 이렇게 한다>, 미술 연구용역 보고서 '미술관 건립·운영 매뉴얼' '미술관 마케팅 백서' 등이 있다.

승패를 떠난 화합의 한마당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정월대보름제 축제에서 기줄다리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다. | 삼척시

새해 덕담을 나누는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월대보름이 훌쩍 지났다. 정월대보름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달인 정월에 가장 밝은 달이 뜬 날이다. 우리 선조들은 설날보다 정월대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의미를 담은 의식을 치렀다.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오곡밥과 아홉 가지 나물을 차려 먹기도 하고 한 해 부스럼 예방 및 치아 건강을 바라는 의미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도 있다.

마을 단위로 축제도 열렸다. 농악 연주는 정월대보름 축제 내내 마을의 흥을 돋웠고 쥐불돌리기와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등 세시풍속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가운데 가장 대규모 놀이는 바로 줄다리기였다. 굳이 놀이 방법을 설명해야 할까 싶지만 두 편이 마주 보고 줄을 잡아당겨 줄의 중앙을 더 많이 끌어오는 쪽이 이기는 놀이다.

보통 정월대보름 직전 해에 추수한 짚을 엮어 크고 긴 줄을 만든 뒤 마을 사람 모두 참여해 두 팀으로 나뉘어 승부를 겨뤘는데 이 단순한 놀이로 한 해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했다. 일종의 신앙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요즘은 줄다리

기 줄이 가늘지만 예전엔 지름 1m 안팎에 길이가 50~60m에 이를 정도로 대형이었다. 줄다리기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렀다. 남녀 편을 갈라 여자 편이 이길 때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서 여자 편이 승리하도록 남자 편이 양보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2015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지정

이처럼 줄다리기는 농경문화의 산물이다. 벼농사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사다. 그러려면 공동체의 단결력이 중요했고 결속력을 끌어내기에 줄다리기만 한 놀이는 없었다. 단순 명료한 승부 방식으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형태인 데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직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을 쏟아붓는 연대감이 하나의 줄을 타고 같은 편에 공유됐던 것이다.

줄다리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흔하디흔한 전통 놀이다. 어쩌면 너무 익숙하고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고 지나치 않나 싶는데 줄

**줄다리기는 농경문화의 산물이다. 벼농사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사다.
그러려면 공동체의 단결력이 중요했고 결속력을 끌어내기에 줄다리기만 한 놀이는 없었다.**

줄다리기는 2015년 유네스코가 인정한 무형문화유산이다. 재밌는 점은 여러 국가가 공동 등재했다는 사실이다. 등재 주체는 우리나라 외에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이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한 공식 명칭은 영문으로 'Tugging rituals and games'이다.

줄다리기 유네스코 공동 등재는 사실 우리나라 주도로 성사된 숨은 뒷얘기가 있다. 우리나라가 '다국가 공동 등재' 모델을 최초로 끌어낸 것이다. 우리나라 등 4개 국가는 모두 벼농사 문화권 국가로 풍년을 비는 의식 수단으로 줄다리기 문화가 공히 존재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줄다리기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추진했고 그 결과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이 참여 의사를 밝혀 2015년 결실을 맺었다. 4개 국가가 힘을 보태 유네스코와 줄다리기에서 멋진 승리를 끌어낸 셈이다.



지자체 줄다리기 축제로 지금까지 전승

그런데 우리나라 줄다리기 문화에선 다른 나라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 바로 경기 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우리 조상은 마지막 승부를 내기 전까지 짧으면 하루, 길면 사나흘 동안 여유롭게 줄다리를 했다. 상대 힘이 부족해 줄이 달려와 판세가 기울면 슬쩍 힘을 빼 줄의 균형을 맞추는 등 승부 자체보다는 승부로 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지는 화합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경기 중간에 일부는 잠깐 대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길고 긴 승부가 남긴 전리품인 줄은 썰어서 이 긴 편이 전부 나눠 갖거나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한

음끔씩 잘라 갖고 갔다. 쓰임새는 여러 곳이었다. 농작물이 병들지 않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 때문에 눈에 거름으로 뿌리기도 했고 마을 입구에 있는 액막이들에 감아두기도 했다. '가축 여물로 주면 잘 크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갈 때 갖고 가면 풍어가 든다' 등 온갖 속설이 있어서 줄다리기 참여자라면 서로 갖고 가려 했다.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줄다리기는 충남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 강원 삼척의 기줄다리기, 경남의 영산줄다리기 등이 있다.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행사로 줄다리기 축제를 열고 있으니 옛 줄다리기의 웅장한 원형을 체험하고 싶다면 직접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

◀충남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 민속 축제를 앞두고 일반인들이 줄다리기 제작에 참여해 큰 줄을 꼬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당진시



● 김정필
〈한겨레〉기자



‘살아서 맛나라’ 곰삭은 김치야 반갑다

김 / 치

한식 대표 식문화 아이콘은 김치다. 김치야 사철 맛있지만 특히 김장김치가 곰삭은 요즘 김치찌개 맛이 가장 좋을 때다. 김치국물에 맛이 드니 당연히 응용 요리도 맛있다. 김치국도 김치전도 김치만두까지 요즘 것이 제대로다.

김치는 한식의 필수 구성요소다. 밥, 국과 함께 상차림의 반찬 가짓수 ‘첩’에도 들지 않는다. 그만큼 기본으로 여겼다. 중국이 주장하는 김치공정, 파오차이(泡菜)야 어쨌든 관심없고 우리는 김치를 상고 시대부터 먹어왔다. 김치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나온다. 채소를 절여 만든 침채(沈菜)가 덩치(漬菜)를 거쳐 김치가 됐고 동침(冬沈)은 동치미가 됐다. 한자로는 장아찌를 총칭하는 지(漬)로 썼다가 김치만 따로 저(菹)로 독립했다.

김장은 예전부터 담갔지만 처음에는 무가 기본이었다. 먼 훗날인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배추김치가 추가됐다. 임진왜란

이후 들어온 고춧가루도 그때야 대중화돼 배추와 함께 김장 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김치의 주재료는 다양하다. 배추와 무는 물론이며 대파, 쪽파, 오이, 열무, 알타리, 순무, 갓(겨자잎), 고들빼기(고채), 고수, 고구마순 등 다양한 채소가 김치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과일도 김치가 된다. 한식재단 전통식품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제로 존재하며 전수되고 있는 김치 가짓수가 1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고 담근 배추김치는 순식간에 한식 밥상을 지배했지만 불과 100여 년이 지난 후 생산원이 불균형과 쌀 섭취량 감소, 육류 반찬 공급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독보적인 반찬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김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로 등재)으로서 유산균 발효식품이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여전히 세계적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국내 섭취량은 감소해도 오히려



김치삼겹살

살짝만 달아도 혀끝이
찌르르한 붉은 김치를
보기만 하면 당장
식욕이 아지랑이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볶아먹어도 지저먹어도
끓여도 맛좋은 봄날의
김치가 반갑다.



●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해외에서 김치 소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김치는 저장 음식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산균이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준다. 역시 염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요거트와 치즈 등의 유산균보다 김치 유산균은 장내 생존력이 더 길어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김치는 밥 뿐 아니라 고기와 라면, 국수 등 웬만한 한식 '주식'에 모두 어울린다. 적당히 맛이 든 김치를 쪽쪽 찢어 밥술 위에 올리면 한 그릇이 푹딱이다. 맨밥이 그러할진대 국밥이나 누룽지, 칼국수는 더하다. 김치국물은 어디에 넣어도 기본은 한다. 감칠맛을 내는 다양한 재료가 든 복합 양념이라 최고의 조미료 구실을 한다.

살짝만 달아도 혀끝이 찌르르한 붉은 김치를 보기만 하면 당장 식욕이 아지랑이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볶아먹어도 지저먹어도 끓여도 맛좋은 봄날의 김치 음식 잘하는 집을 몇 곳 찾아봤다. ●

전국의 김치 맛집



★**굴다리식당** 집에서처럼 한 번에 끓이다가 사발에 담아주는 가정식 김치찌개 집이다. 비계가 붙은 큼직한 돼지고기를 뽕뽕뽕 뽕뽕 뽕뽕 고 오래 끓였다. 만화 심야식당에 나오는 '어제의 카레'처럼 맛이 제대로 들어 고깃덩이를 씹을 때도 김치찌개 특유의 새콤한 맛이 배어난다. 서울 마포구 새창로 8-1.



★**장호왕곱창** 일명 '짬뽕'집으로 통하는 이 집은 시원한 전골식 김치찌개 맛집이다. 육수에 고기를 충분히 넣고 통배추 김치찌개를 올려 팔팔 끓여낸다. 한소끔 끓고 나면 라면사리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낸다. 큼직한 돼지고기 한 점에 김치를 둘둘 말아먹으면 더욱 좋다. 서울 중구 순화동 6-16.



★**술발가든** 계국지는 충청도 해안가의 김장김치 활용 요리다. 태안은 김장김치가 곰삭은 겨울부터 게장국물로 맛을 낸 김치찌개를 집에서 끓이는데 그게 계국지다. 푹 익은 김치에 계국(게장국물)의 맛까지 들어 감칠맛이 최고다. 술발가든은 가정식 계국지보다 꽃게와 새우 등 건더기를 통째로 넉넉히 넣고 끓여낸 계국지 전골이 맛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76-5.



★**신라초밥** 1977년 개업한 마산의 초밥 노포다. 코스 메뉴 중 독창적으로 개발한 '김치초밥'을 시그니처로 올린다. 김치를 초밥에 싸 썰어낸 김치초밥은 코스 메뉴 마지막쯤에 등장하는데 그간 먹었던 생선회와 조림, 튀김 등의 마무리로 씹 훌륭하다. 젓갈을 많이 쓰지 않아 시원한 '경상도식' 김치가 달콤한 초밥과 잘 어울린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길 8.

★**천이오겹살** 합정동에서 김치삼겹살을 잘하기로 소문난 집. 새로운 점포가 명멸하는 홍대-합정 라인에서 무려 19년째 영업중이다. 냉동삼겹살과 오겹살을 번철에 올리고 그 기름에 새콤한 김치를 지저먹는다. 잘 익은 김치를 지지만 기름진 삼겹살과 궁합이 아주 좋다는 것은 한국인 누구도 안다. 서울 마포구 양화로7길 12.

 공감 리뷰



641호 '한국의 멋·수원화성'에 대한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은 뿌리를 엄청 중요시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앞만 보고 내달리는 줄 알았는데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하더군요.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수원화성이 나와 이름만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을 알게 돼 친구에게 들려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뿌듯합니다. 기록의 중요성도 생각해봤습니다.

신효영 충남 아산시 청운로



642호 '택책치료 처방액 모든 동네약국서 조제·전달, 자
가검사키트 편의점·약국에서 개당 6000원' 기사
를 읽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환자가 급증하면
서 택책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를 모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환자들의
고충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가검사키트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늘고 있는데
요. 특히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한
다고 하니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와 격
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신동준 서울 종로구 송월길

 사진 공감



동네 산책길에 폐가에서 화재 진화의 초동 대응을 돕는 오래된 소화기함을 보았습니다. 겨울이면 유난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지만 혹시 불이 났을 때 내 옆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집집마다 화재 대비 필수품인 소화기를 비치해주면 좋겠네요.

김현국 강원 원주시 부론면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www.facebook.com/wegongqgam

 www.instagram.com/we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content.v.kakao.com/3094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post.naver.com/mcst_pr

 blog.naver.com/mcst pr

 ridibooks.com

 digital.kyobobook.co.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9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제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국민이 원하면 정책이 바뀝니다. 국민의 생각을 적극 신청해 주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들겠습니다.

- ☒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 안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 번 들겠습니다.

- ☒ 소극행정 신고 처리에 만족 못 하신다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사전투표 3월 4일(금)~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